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48

갈라디아서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갈라디아서

Galatians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5:1)

τῇ ἐλευθερίᾳ ἡμᾶς Χριστὸς ἠλευθέρωσεν· στήκετε οὖν καὶ μὴ πάλιν ζυγῷ δουλείας ἐνέχεσθε.

갈라디아서 차례

갈라디아서 서론	〈17제〉	… 277
제 1 장 복음에 대한 바울의 변호	〈20제〉	… 285
제 2 장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	〈19제〉	… 292
제 3 장 율법과 믿음의 관련성	〈22제〉	… 299
제 4 장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호소	〈28제〉	… 307
제 5 장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생활	〈17제〉	… 319
제 6 장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권면	〈18제〉	… 328

갈라디아서 특별 자료 차례

갈라디아서 서론 〈연구 자료〉 기독교와 유대교	283
제 1 장 〈본장의 요절〉	291
제 2 장 〈화보 자료〉 수리아 안디옥의 풍경	298
제 4 장 〈연구 자료〉 성경에 사용된 아람어(Aramaic)	318
제 5 장 〈본장의 요절〉	327
제 6 장 〈연구 자료〉 중생(重生)의 의미	334

갈라디아서 서론

1. ㉠ 본서신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본서신은 1:5;5:2에 언급되어 있듯이 사도 바울에 의해 기록되었다.
- (2) 그러나 브루노 바우어(Bruno Bauer, 1809-1882)와 슈텍(Rudolf Steck)을 위시하여 로만(Loman), 피어슨(Pierson), 나버(Naber), 반 마넨(Van Manen) 등으로 구성된 급진주의적 화란 학파는 본서신이 바울의 기록이 아니라 초대 교회 안에서 유대주의자들과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 사이에 일어난 2세기의 분쟁 결과 만들어진 것으로 바울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바울주의자들이 바울의 이름과 권위를 빌어 쓴 작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극단적인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 (3) 1740년 무라토리(L. A. Muratori)에 의해 발견된 무라토리 단편(Muratorian Fragment)과 A. D. 4세기 초엽에 가이사라의 주교로 있었던 신학자 유세비우스(Eusebius of Caesarea) 및 심지어 A. D. 1세기경의 영지주의자(Gnostics)인 마르시온(Marcion)뿐만 아니라 그 이후 19세기에 일어난 튀빙겐(Tübingen) 학파를 포함한 대부분 학자들은 본서신이 바울의 저작임을 의심치 않는다.
- (4) 특히 본서신에 나타난 바울의 성격과 사상이 바울의 저작임에 틀림없는 로마서와 고린도서 등의 서신에 나타난 것과 잘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본서신이 완벽한 바울의 저작임을 말해 준다.

2. ㉠ 본서신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 ㉠ (1) 본서신의 수신자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갈라디아 교회의(행 14:21-23) 성도들이다(1:2).
- (2) 그런데 ‘갈라디아인’(Galatians)이란 말은 ‘귀족’을 뜻하는 말 ‘고을’(Gaul)에서 유래하였다.
- (3) 이러한 사실은 갈라디아인이 프랑스에 거주하였던 켈트족(Celts)의 한 지류인 고을족(Gauls)에 속한 사람들이었음을 말해 준다.
- (4) 즉 이 고을족 가운데 일부는 B. C. 3세기경에 마케도나 지방으로 침입해 들어와서 점차적으로 소아시아 지방에까지 거주하게 되었는데, 특히 소아시아 지역의 거주인들을 ‘갈라디아인’이라고 일컬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인’ 가운데에는 팔레스틴에서 이주해 온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Josephus).
- (5) 이와 같은 내력을 지닌 갈라디아인은 일반적으로 북갈라디아인과 남갈라디아인으로 구분된다.
- (6) 그 가운데서 비시디아의 안디옥(Pisidia Antioch), 이고니온(Iconium), 더베(Derbe), 루스드라(Lystra) 지역 뿐만 아니라 루가오니아(Lycaonia)와 이사우리아(Isauria) 지역에 거주했던 남갈라디아인이 본서신의 수신자인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다(William Ramsay, M. C. Tenney, Ridderbos).

3. ㉠ 본서신의 기록 연대와 장소에 대해 설명하라.

- ㉠ (1) 본서신의 저작 시기와 장소를 정확하게 말하기란 어렵다.
- (2)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서신이 바울의 제 1차 전도 여행(A. D. 46-48)이 끝난 후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A. D. 49)가 있기 전에 기록되었거나(M. C. Tenney, Gromacki)

- 바울의 제 2차 전도 여행(A. D. 50-52) 중에(Zahn, Clarke), 아니면 바울의 제 3차 전도 여행(A. D. 53-58) 중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Thiessen, J. B. Lightfoot).
- (3) 우리는 그와 같은 주장 가운데서 마지막 견해 곧 바울이 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본 서신이 쓰여졌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4) 행 13:14-14:23에 의하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제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이때의 일이 본서신 4:13에 회고되어 있다. 이 사실은 본서신이 바울의 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훨씬 이후에 기록되었음을 나타낸다.
 - (5) 또한 행 18:23-20:2, 31을 보면 바울은 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간 체류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썼으며 그곳에서 마게도냐로 가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기간에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갈라디아 교회에는 팔레스틴에서 온 유대인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무시하고 은혜의 교리 대신 모세 율법을 강조함으로써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바로 이때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그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서신을 기록하였다(4:19, 20).
 - (6) 이렇게 볼 때 본서신은 바울이 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게도냐에서 급히 기록된 것이다. 따라서 기록 연대는 A. D. 55-58년 어간으로 추정된다.

4. **㉠** 바울이 본서신을 쓰게 된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가?

- ㉠** (1) 바울의 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은(4:13-15) 그 당시 세례를 받았고(3:27) 성령도 체험했지만(3:5), 그들 대부분이 원래 이교도들이었기 때문에(4:8) 그리스도와 그들이 전에 신봉했던 율법 및 의식을 결합시킨 형태로 복음을 재구성하기 쉬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 (2) 게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곳에 온 몇몇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율법주의를 강조하였을 때(예를 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 6:13)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에는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는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 (3)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파급된 유대주의파 선동가들의 해독을 제거하고, 율법의 행함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 값없는 구원을 재강조함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이 순전한 신앙을 되찾기 원하였다.
- (4) 이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기회에 자신을 비난하며 대적하는 자들과 맞서서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이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임을 천명(闡明)하고자 하였다(5:2-12; 6:12-17).
- (5) 이상(以上)에서 언급한 사실들을 볼 때 바울은 그릇된 교리로 인해 혼란 가운데 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증성하게 맺게 하는 순전한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본서신을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 본서신의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라.

- ㉠** (1) 1, 2장에 걸쳐 바울은 오직 거룩한 계시를 통하여 받은 자신의 사도권(apostleship)을 강력하게 변호한다. 이는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가 전한 메시지의 무오성(無誤性)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이다.
- (2) 3장과 4장에서는 복음적인 신앙에서 떠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복음이란 믿음을 요구하는 은혜의 메시지인 반면 율법은 믿음을 돈독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저주를 일으킬 뿐이며 인간은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되어야 함을 말한다.
- (3) 5장에서는 복음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의 노력보다는 십자가의 힘과 성령의 능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4) 끝으로 바울은 6장에서 사랑으로 성도의 교제를 돈독히 할 것과 아울러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리와 자유를 지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5) 이와 같은 본서신의 내용은 이신 득의(justification by faith)라는 주제가 강력히 변호되고 설명되며 적용되어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6. ㉠ 본서신의 중심 사상은 무엇인가?

㉠ (1)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했으므로 스스로 구원이나 성화를 이룩할 수 없는 존재이다(3:22;5:19-21).

(2) 그런데 어떤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2:4;4:9, 10, 21;5:4;6:12).

(3) 그러나 바울은 인간이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한다(2:16, 17, 21;3:11-15, 24).

(4) 아울러 바울은 인간이 거룩하게 되는 것(聖化)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다(4:6, 7;5:13-26).

(5)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본서의 중심 사상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以信得義)와 구원'이다.

(6) 이러한 사상을 담고 있는 본서신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에 인간의 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모든 신학의 허구성을 여지없이 폭로한다.

7. ㉠ 갈라디아 지방의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하라.

㉠ (1) 이 지역은 소아시아 중앙 부분에 위치한 고원 지대로 오랜 옛날부터 빈번한 민족들의 이동과 강대국들의 각축(角逐)에 의해 많은 혼란을 겪었다.

(2) 즉 이곳은 B. C. 3천년대에 히타이트족이, B. C. 2천년대에는 헬라 사람들과 브루기아 사람들이 그리고 B. C. 1천년대에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사람들이 지배하였다.

(3) 또한 B. C. 278년경에는 고을족(Gauls)이 이 지역에 침입해 들어와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들은 B. C. 189년 로마의 장군 만리우스(Marlius Vulso)에게 정복당했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바울 당시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이 지역은 로마 제국의 한 부분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4) 이와 같은 사실들이 암시하듯이 갈라디아 지역의 역사는 한 마디로 말해서 전쟁, 노예, 빈곤, 질병, 기근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유흥과 잔학의 어두운 역사였다.

8. ㉠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 (1) 제 1차 전도 여행시 수리아 안디옥의 선교 본부를 떠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구약의 역사와 율법을 근간으로 복음을 증거했다(행 13:16-41).

(2)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하여 그곳에서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곧바로 이고니온으로 가 전도하였다(행 13:50-14:5).

(3) 계속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다시 루스드라로 가서 전도하였는데 그는 그곳에서 많은 개종자들을 얻게 되었다(행 14:1-7).

(4)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더베로 가 설교하였다(행 14:8-21).

(5) 이제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의 순으로 온 길을 되돌아가면서 그곳에 각각 장로들을 세워 여러 교회를 조직함으로써 그의 1차 전도 여행을 끝마쳤는데(1:2;행 14:21-25), 바로 이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인 것이다.

(6) 이상에서 볼 때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제 1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결실로서 사도 바울이 갖은 핍박을 다 겪으면서 세운 교회임을 알 수 있다.

9. ㉠ 본서신에 나타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 ㉠ (1)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의 가르침(2:16, 17; 3:11)을 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같은 가르침을 완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라 개종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이었기 때문이다(4:8).
- (2) 이러한 상황은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 율법주의에 기울 어지도록 하려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의도를 쉽게 성취시켜 준 결과를 가져 왔다(4:10; 5:2; 6:13).
- (3) 즉 갈라디아의 이방인 신자들이나 유대인 신자들은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관을 전적으로 배격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교리로 여긴 것이다.
- (4)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일들을 스스로 결정하며 행하기(5:16-18) 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라고 명하는 율법 조문 갖기를 좋아하였다(4:9; 5:4).
- (5) 또한 그들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지만,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와 율법을 중요시함으로써 결국 사이비(似而非) 교리에 빠져들 위험성을 지니게 되었다(5:2-4; 6:12).
- (6) 이와 같이 잘못된 교리가 만연해 있으며,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 (7) 따라서 오늘날의 교회들은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권고에 의해 올바른 신앙관을 회복했듯이 항상 복음에 입각한 바른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고전 16:13; 계 3:2, 3).

10. ㉠ 본서신의 특징은 무엇인가?

- ㉠ (1) 첫째, 거짓된 교리를 논박하는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1:1; 3:1, 3; 6:17). 따라서 본서신 전반에 걸쳐 과격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데 이는 마치 마틴 루터(M. Luther)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 항거했을 때를 상하게 한다.
- (2) 둘째, 바울 서신들 가운데서 바울의 자서전적(自叙傳的) 특징을 가장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특히 1:18-2:14의 내용은 바울의 생애에 대한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 (3) 셋째, 기독교 신앙에 관한 핵심적 내용이 되는 율법과 복음의 의미와 그 상호간의 관계를 잘 규명해 주고 있다(2:16; 3:1-4:31).
- (4) 넷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관한 교리와 더불어 신앙의 실천적인 면에 대해 말하고 있는 올바른 기독교 윤리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5:1-6:10).
- (5)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본서신은 비록 그 분량은 적지만 기독교 신앙의 초보적 교리에 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성화(聖化)의 생활 같은 성숙한 주제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11. ㉠ 본서신은 어떠한 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 ㉠ (1) 오래 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본서신을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Magna Carta of Christian Liberty)이라고 일컬어 왔다.
- (2) 또한 성경의 여러 책들 중에서 본서신을 으뜸으로 꼽은 루터(Luther)는 본서신에 자기 아내의 이름 '캐더린 폰 보라' (Catherine von Bora)라는 별명을 붙이면서 '나는 이 책과 결혼했다' 라고 말하였다.
- (3) 이러한 사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인간은 죄와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 어느 것에도 예속되거나 방종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 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강력히 말하고 있는 본서의 기록(5:1-12)에 기인한 것이다.

- (4) 실제로 인간은 모세 율법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는 의식주의(儀式主義, 4:9), 엄격한 금욕주의, 도덕적 의, 자연 법칙(the laws of Nature), 과학 또는 자기 자신 등을 의지함으로써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없었고 또 앞으로도 누릴 수 없다.
- (5) 그러나 모든 사람은 본서신의 내용을 통해서 참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본서신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2. ㉠ 본서신과 로마서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사상을 도표화하라.

㉠ (1)

공통 사상	갈라디아서	로마서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以信得義)	2:16;3:5,6,11	1:17;3:20-22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자유함을 얻음	2:19, 20	6:6,8;7:4
율법은 임시적이며 무능함	3:19-21	8:3, 4
율법은 문하 선생의 역할을 함	3:23-26	7:1-3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 수 있게 됨	3:27	6:3;13:14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가 됨	4:5-7	8:14-17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화(聖化)의 생활을 해야 함	5:13-26	6:1-8:39

- (2) 이와 같이 본서신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 요소가 되는 사상 면에 있어서 로마서와 매우 흡사하다.
- (3) 그런데 내용의 분량에 있어서 본서신은 로마서에 비해 아주 적다.
- (4) 따라서 본서신은 일명 '소로마서' 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13. ㉠ 본서신과 고린도후서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내용을 도표화하라.

㉠

공통 내용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 변호함	1:1,11-2:21	10, 11장
바울 개인의 이력	1:13-2:14	11:16-12:10
그리스도의 속죄	3:13	5:21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음	6:7	9:6

14. ㉠ 본서신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바울의 행선지를 사도행전 13, 14장과 비교해 차례대로 도표화하라.

㉠

행선지	중요 사건	동행지	특기 사항	해당 구절
바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독 서기오 바울의 개종 • 바예수라 하는 박수가 바울을 대적했으나 소경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나바 • 요한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보에서의 선교 활동이 끝난 후 요한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감 • 버가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함 	행 13:6-14
비시디아 안디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주간 동안 회당에서 구약의 역사와 율법을 토대로 특수한 설교를 함 • 많은 이방인 개종자들을 얻었으나 유대인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나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므로 이고니온으로 향함 	행 13:15-52

	의 박해 때문에 이고니 온으로 도망함			
이고니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믿음 • 바울과 바나바가 표적과 기사를 행함 •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합세하여 박해함 	• 바나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방인과 유대인 및 관원들의 박해를 피해 루가오니아 성의 루스드라로 향함 	행 14:1-7
루스드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앓은뱅이를 일으킴 • 바나바와 바울이 신으로 오해됨 • 바울이 자기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았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남 	• 바나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더베로 향함 • 바나바와 함께 더베에 서 복음을 증거한 후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러 교회를 세움 	행 14:8-23

15. ㉠ 본서신에 기록된 상호 대조적인 내용을 도표화하라.

복음에 대하여 (1,2장)	다른 복음 (1:6-8)	그리스도의 복음 (1:7)
	거짓 형제 (2:4)	그리스도의 종 (1:10)
	인간의 논리 (2:6, 12, 13)	하나님의 계시 (1:16; 2:2, 8)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대하여 (3,4장)	아담-안에서 모든 육체는 죽는다 (2:16)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산다 (2:19, 20)
	율법 (3:2, 11, 12, 19, 21, 24; 4:4, 5, 21)	은혜 (3:18)
	행위 (3:2, 5)	신앙 (3:2, 5)
	행위로 인한 저주 (3:10)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3:11)
성화의 생활에 대하여 (5,6장)	사망의 저주 (3:13, 22)	생명의 축복 (3:8, 9, 22)
	노예 (4:7, 29, 30)	자유로운 아들 (3:29; 4:7, 28-31)
	하갈로 상징된 옛 언약 (4:24, 25)	사라로 상징된 새 언약 (4:26, 27)
성화의 생활에 대하여 (5,6장)	육체 안에 거함 (5:4)	성령과 동행함 (5:5, 16, 18)
	육체의 일 (5:19-21)	성령의 열매 (5:22, 23)
	은혜에서 떠남 (5:13; 6:1)	은혜에 굳게 섬 (5:1; 6:2)
	외식주의적인 삶 (6:12)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 (6:14)

16. ㉠ 본서신의 대지(大旨)를 구분하라.

㉠ (1) 복음과 사도권 / 1:1-2:21

① 서언 / 1:1-10

- ㄱ. 문안 인사 / 1:1-5
- ㄴ. 편지를 쓰는 이유 / 1:6-10

②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대한 바울의 변호 / 1:11-2:21

- ㄱ. 계시를 통해서 얻은 그의 권위 / 1:11-24
- ㄴ.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 인정된 그의 권위 / 2:1-10
- ㄷ. 베드로를 책망하는 데서 나타난 그의 권위 / 2:11-14

- ③ 이신 득의(以信得義) /2:15-21
- (2) 복음에 대한 바울의 변호 /3:1-4:31
- ① 복음과 율법 /3:1-14
- ㄱ. 교리상의 쟁점 : 믿음이나 행위냐 /3:1-5
- ㄴ. 아브라함의 전례 /3:6-9
- ㄷ. 율법의 저주와 복음의 축복 /3:10-14
- ② 언약과 율법 /3:15-4:7
- ㄱ. 율법은 언약을 폐하지 못함 /3:15-18
- ㄴ. 율법은 언약을 위한 일시적 방편임 /3:19-22
- ㄷ. 율법은 몽학 선생 /3:23-29
- ㄹ. 율법은 후견인 /4:1-7
- ③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 /4:8-31
- ㄱ. 초등 학문에 되돌아가는 어리석음 /4:8-11
- 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염려 /4:12-20
- ㄷ. 자녀와 종의 비유를 통한 바울의 호소 /4:21-31
- (3) 복음과 윤리 /5:1-6:18
- 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5:1-12
- ② 성령 안에서 의 삶에 관하여 /5:13-26
- ㄱ. 자유는 방종이 아님 /5:13-18
- ㄴ. 육체의 일 /5:19-21
- ㄷ. 성령의 열매 /5:22-26
- ③ 성도의 교제에 관하여 /6:1-10
- ㄱ. 서로 짐을 지라 /6:1-5
- ㄴ. 서로 도와 주라 /6:6-10
- ④ 결론 /6:11-18
- ㄱ.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마지막 경계 /6:11-13
- ㄴ. 십자가를 자랑함 /6:14-17
- ㄷ. 축도 /6:18

17. **Q** 본서신의 요점은 무엇인가?

- A**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5:1).

연구자료

기독교와 유대교

본서신은 전통적 유대주의 사상에 빠져 있던 교사들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 내에 전파된 유대주의의 모순에 대항하여 기독교적 입장을 표명한 일종의 신앙 변증서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우리는 기독교와 유대교 간에는 어떠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지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1. 기독교와 유대교 간의 연속성

기독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대교와 본질적인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 유대인들이 조상 적부터 섬겨 왔던 창조주 하나님을 기독교인들도 믿고 섬긴다는 점이다. 그리고 유대교의 주요 경전 곧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모세 오경)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딤후3:16)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오실 메시아이셨으며 육적(肉的)으로 유대인의 혈통을 좇아 세상에 오셨다는 점에서도 기독교와 유대교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예수의 명령을 좇아 세계 도처에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설립하였던 초대 교회의 사역자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다는 점도 기독교와 유대교 간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2. 기독교와 유대교 간의 불연속성

이상과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와 유대교 간에는 현격한 불연속성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까닭은 무엇인가? 이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들은 오늘날에 있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서 아직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신18:15;사9:6,7;11:1-5, 10)를 대망(待望)하고 있다. 사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1차적인 목적은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참조, 마10:1-6;15:21-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끝내는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하였다. 한편 유대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자연스럽게 율법 준수 문제에 있어서조차 기독교와 유대교 간의 불연속성을 낳게 되었다. 즉 유대교인들은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선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독교인들은 이제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의 대속 사역을 믿고 그 의를 힘입음으로써 이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님을 주장한다(3:10-14;롬3:19-22).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율법 준수의 도덕적 측면, 사랑의 정신에 입각한 율법 준수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갈라디아 교회 내의 유대주의 교사들처럼 이방인들까지도 육체적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절대적인 율법 준수 강요(참조, 5:11, 12)에 대하여선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의 입장이다. 왜냐하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5:4)가 되기 때문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친히 담당하시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는데 다시금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다는 것은 곧 그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와 유대교 간에는 불연속성이 존재하고 있다.

제 1 장 복음에 대한 바울의 변호

단락구분 1 바울의 사도권의 기원 / 2-5 문안 인사 / 6-10 바울이 거짓 복음을 쫓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거짓 교사들을 저주하다 / 11-12 계시를 통해 받은 바울의 복음 / 13-17 바울의 초기 생애와 그의 회심 / 18-24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증거에 힘쓰는 바울

1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밋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2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3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5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6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8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1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12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

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13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14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

15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16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8 그 후 삼 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심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십 오 일을 유할새

19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20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21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22 유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23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24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1. ㉠ 본장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장 전체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기원(起原)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다.
- (2) 바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참복음은 오직 하나라는 사실과(6-10절), 그 자신이 회심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다(18-24절).
- (3) 이와 같이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 강력히 변호한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선동으로 인해 그릇된 신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 (4) 또한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여 거짓 복음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의 행위를 저지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이탈하는 신자들을 권면하여 그들이 올바른 신앙관을 갖도록 관심을 쏟아야 하며, 아울러 정면으로 복음을 방해하며 대적하는 자들에게 용기 있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참조, 요 10:16; 고후 11:28; 살전 3:10).

2. **㉠ 본장에 나오는 인사말의 특징을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비교하여 설명하라(1-5절).**

- ㉠ (1) 본서신의 인사말에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발신자의 이름, 수신자들을 위한 은혜와 평강의 기원 등 서신이 갖추어야 할 통상적인 요소가 들어 있다.
- (2) 그러나 본서신의 인사말에는 다른 서신서들에게 의례히 하던 교회에 대한 칭찬이 나오지 않는다(비교, 롬 1:8; 고전 1:4-7; 고후 1:7; 엡 1:15,16; 빌 1:3-5; 골 1:3-6; 살전 1:6-8).
- (3) 또한 본장의 인사말에는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강력하게 재천명한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 있다(1절).
- (4) 이러한 사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서 전해 받은 복음에서 즉시 떠나 그릇된 길로 걸어갔다는 독특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6-9절).
- (5) 그와 같은 상황을 알게 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 유감(遺憾)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6절).
- (6) 그러나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충격적인 소식으로 인해 인간적으로 흥분하지 않고 자제하면서 다만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릇된 신앙을 바로잡으려고 하였다.
- (7)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목회자들은 신자들의 명백한 잘못을 보았을 때 감정적으로 그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해야 할 것이다(참조, 6:1; 딤후 3:2).

3. **㉠ ‘사도’(使徒)의 유래와 기원에 대해 설명하라(1절).**

- ㉠ (1) ‘사도’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는 원래 그리스인의 이익을 옹호할 사명을 가지고 외국에 파견된 그리스도의 해군 원정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 (2) 이 말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단체의 대표자에 대해 사용되었다.
- (3) 그러나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이후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용되었다.
- (4) 그리하여 이 단어는 신약에 79회나 사용되고 있는데 모두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자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참조, 롬 1:1; 고전 1:1; 고후 1:1).
- (5) 그러므로 사도의 기원은 인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
- (6) 바울의 경우,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행 9:6), 주의 명령에 따라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았으므로(행 9:17) 그의 사도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진 것이다(참조, 행 9:15).
- (7) 이상과 같은 유래와 기원을 지니는 사도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참된 목회자의 기원은 그리스도께 있다(참조, 히 13:20).

4. **㉠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4절)**

- ㉠ (1)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결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이다(롬 5:8).
- (2) 특히 바울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3) 이것은 구원이 인간의 뜻이나 공로에 달려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다(롬 9:16).

- (4) 바울이 이와 같이 본서신의 서두에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한 이유는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든가 그릇된 구원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3:1-5).
- (5) 우리는 율법적인 복종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릇된 교리를 경계하고 항상 복음의 핵심을 굳게 잡자(딤후 1:9; 히 4:14).

5. **㉠**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4절)

- ㉠** (1) ‘이 악한 세대’로 번역된 헬라어 <투 에네스토토스 아이오노스 포네투>는 ‘오는 세상’(마 12:32), ‘저 세상’(눅 20:35)과 대조되는 표현으로 ‘현재의 이 악한 세상’을 의미한다(KJV, this present evil world).
- (2) 여기에서의 ‘세상’은 저주와 부패와 사단의 속박 아래 있는 상태의 세상이다(참조, 고후 4:4; 엡 6:12; 살후 2:9, 10).
- (3) 이렇게 볼 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부패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다(참조, 딤후 1:12; 4:18).
- (4) 또한 이 말은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참조, 요 14:2, 3).
- (5)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요 11:25, 26).

6. **㉠**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한 이유는 무엇인가? (6절)

- ㉠** (1) 첫째, 그들이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다.
- (2) 둘째,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부름을 받았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죄로부터 구속받았으며(4절) 장래의 영생과 행복에의 불리움을 받았었지만 여기에서 떠났다.
- (3) 셋째, 그들이 ‘속히’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좇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떠나’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타티테스테>는 문자적으로 ‘버리고 있었다’라는 의미이다(RSV, NIV, are deserting). 이 말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된 배교(背教)의 위험성을 지닌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 (4)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떠나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타락 행위인가를 상기해야 한다(참조, 히 6:1-8).

7. **㉠**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는 무슨 의미인가? (6절)

- ㉠** (1) ‘이상히 여기노라’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다우마조>는 단순히 ‘놀란다’(RSV, NIV, am astonished)는 의미 외에, ‘절망적이며 고통마저 느끼게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참조, 막 6:6).
- (2) 이 말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회심한 후에 곧 신앙을 저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 (3) 이러한 사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 매우 열성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대조된다(참조, 4:14, 15; 5:7).
- (4) 그런데 당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같은 변절에 대해 심한 비난을 퍼붓지 아니하고 다만 ‘이상히 여긴다’는 말로써 그들을 부드럽게 질책하였다.
- (5)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잘못을 보았을 때 비난의 화살을 던지기 보다는 진정으로 그들의 잘못이 시정되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과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을 교훈받는다(5:6; 6:1).

8. **㉠**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퍼뜨린 거짓 교사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는가?

(7절)

- Ⓐ (1) 그들은 형식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있으나 여전히 바리새적인 요소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 (2) 즉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고수하였다 (참조 6:12, 13).
- (3) 이러한 자들은 갈라디아 교회 뿐 아니라 당시 많은 그리스도 교회에 침투하여 평온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동요시켰으며 새로운 교리들로 교회를 분열시켜 교회의 평화를 어지럽혔다 (5:7-9; 롬 16:17, 18).
- (4) 그들이 그와 같이 복음을 곡해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율법과 복음을 혼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과 공적을 무력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 (5) 이와 유사하게 오늘날에도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에 속한 자들이 순진한 성도를 미혹하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 (딤펴전 4:1, 2). 우리는 마땅히 이러한 자들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참조, 마 24:11; 계 20:10).

9. Ⓞ 바울은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8, 9절)

- Ⓐ (1) 그들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였다.
- (2) 여기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나테마 에스토>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따라 진멸시키다’ 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하람>과 유사한 표현이다 (참조, 신 7:2-6; 삼상 15:3).
- (3) 바울은 이 말을 참된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시도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9절의 ‘누구든지’ 라는 말에 나타난다.
- (4) 한편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필요 없이 엄격하다고 말할 수 없다.
- (5) 왜냐하면 만일 사람이 행위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이다 (2:21).
- (6)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나타내어야 할 것이다 (참조, 겔 3:17-21).

10. Ⓞ ‘그리스도의 종’ 이 지녀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10절)

- Ⓐ (1)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그 사명으로 갖는다 (막 16:15).
- (2)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에 근거하여 사람들의 죄과를 책망해야 할 것이다 (살전 2:3, 4).
- (3) 또한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일을 거스르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
- (4) 이러한 태도를 견지할 때 그리스도의 종은 때때로 목이 끈고 완악한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 (5) 그러나 참다운 그리스도의 종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갖은 수단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다 (참조, 딤후 4:2-5).
- (6) 나아가 참된 그리스도의 종은 자신의 자랑, 영웅심의 충족, 정치적인 야망, 물질적인 탐심, 성적 (性的) 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사용하지 않는다 (비교, 사 56:11, 12; 겔 34:1-10).

11. Ⓞ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유래를 가지는가? (11, 12절)

- Ⓐ (1)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증거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권위에 근거하지 않을 뿐더러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님’ (NIV, is not something that man made up) 을 뜻한다.
- (2) 바울은 또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다. 확실

히 그는 복음을 사람, 더군다나 어떤 사도를 통해서도 받지 않았다.

- (3) 마지막으로 복음을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途上)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통하여 복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리킨다(행 26:15-18; 고전 11:23).
- (4) 이와 같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유래된 것이 아니요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역시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다(참조, 딤후 3:16).

12. ㉠ 회심하기 전의 바울의 생애는 어떠했는가? (13, 14절)

- ㉠ (1) 빌 3:4-6에는 이 부분에서 보다 바울의 회심 이전 생활에 대해 더욱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 (2) 거기에 보면 바울은 첫째로, 유대인 그것도 이스라엘의 으뜸가는 유대인이며, 둘째로, 바리새인, 즉 유대주의 중에서 가장 엄격한 종파를 택했으며, 세째로, 행실에 있어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을 엄격히 지킨 데서 증명되듯이 지극히 열렬한 기독교 박해자였다.
- (3) 이러한 바울의 배경은 이제 신실한 참회자요 복음 증거자가 된 그가 전한 복음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달리 하나님의 참복음임을 역설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 (4) 아울러 바울이 그와 같이 자신의 배경을 허심 탄회하게 회고한 것은 복음에서 떠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진리 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의 심정을 보여 준다.
- (5) 이와 같이 결길로 나간 신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부드럽게 호소하는 모습은 모든 목회자들의 모범이 된다(참조, 딤후 2:24, 25; 딤후 3:2).

13. ㉠ 바울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 (15, 16절)

- ㉠ (1)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고 말한다(참조, 렘 1:5).
- (2)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부르셨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것은 그의 회심 곧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행 9:1-19; 22:1-16; 26:9-18).
- (3) 세째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회심케 하셨음을 뜻한다.
- (4) 바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도권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허탄한 교훈에서 떠나기를 권면하고 있다.
- (5) 한편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다(참조, 창 26:23; 사 16:17; 사 44:2, 24; 49:1).

14. ㉠ 초대 교회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16절)

- ㉠ (1) 초대 교회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파송되었다(참조, 행 13:1-3).
- (2) 즉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전도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당시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 (3) 바울과 바나바(행 13:1-5), 베드로(행 15:7), 빌립(행 8:5; 21:8), 아볼로(행 18:24, 25), 그 외에 많은 자들(행 8:4)은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인의 사명을 다한 좋은 실례를 보여 준다.
- (4)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증거자가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힘써야 할 일이다(참조, 롬 10:24; 엡 4:11).

15. ㉠ 바울이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로 간 목적은 무엇인가? (17절)

- Ⓐ (1) 이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질의 전후 관계로 보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리스도의 계시를 깊이 연구하기 위해 아라비아로 갔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2)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으로 이제까지 자신이 예수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 (3) 그렇지만 그는 그 자신이 열렬히 신봉했던 유대주의적인 세계관과 생활관(14절)을 그 당시에 바로 기독교 신학으로 대체할 수 없었을 것이다.
- (4)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기쁨을 간직한 채 한적한 곳에서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재정비하고자 하여 아라비아로 간 것이다.
- (5) 이상과 같은 사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사도를 통해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무력하게 한다(참조, 11, 12절).

16. Ⓞ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도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난 사실은 어떤 교훈을 주는가? (18, 19절)

- Ⓐ (1) 바울은 다메섹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았으므로(참조, 행 9:6-15)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주(主)의 사도들과 관계 없이 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 (2) 그러나 그는 결코 자기의 사도의 권위를 그러한 좁은 시야에서 보지 않았다.
- (3) 즉 그의 사도직은 독립적인 것이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께 속할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관련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참조, 고전 11:2, 3).
- (4) 그래서 그는 기독교로 개종한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의 사도들과 교제를 나누었다(18절).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주의 사도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 (5) 한편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바울의 경우와는 대단히 상치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목사나 장로나 그밖의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유력하게 되면 자신이 속한 교회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분열을 일삼는 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 혈육에 속한 자이다(참조, 고전 1:11-13).

17. Ⓞ ‘심방(尋訪) 하려고’는 무슨 뜻인가? (18절)

- Ⓐ (1) ‘심방하려고’로 번역된 헬라어 <히스토레오>는 영어 단어 ‘history’의 어원이 되는 말로서 ‘상면하다’, ‘교제하기 위해 방문하다’(NIV, to get acquainted with)라는 뜻 외에 ‘대화를 통해 지식을 얻다’는 의미를 지닌다(Vincent).
- (2)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둘 때 바울은 초대 교회의 지도자 된 베드로와 만나서 그리스도에 관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음에 틀림없다.
- (3) 즉 바울은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에 관한 베드로의 생생한 증언을 듣게 된 것이다.
- (4) 바울은 그와 같은 증언을 통하여 자기가 이미 확고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복음의 내용을 확인하였을 것이다.
- (5) 그러므로 바울과 베드로의 만남은 바울 신학 형성에 확고한 기초를 놓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18. Ⓞ 주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18절).

- Ⓐ (1) ‘주의 형제 야고보’는 요셉, 시므온, 유다와 더불어 예수의 동생이었다(마 13:55).
- (2) 그는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으나(요 7:5),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믿게 되었다(행 1:14; 고전 15:7).

- (3) 또한 그는 오순절 때에 사도들과 협력하여 초대 교회 건설에 힘썼으며 (행 1:4) 예루살렘 총회 때에는 의장이었다 (행 15:13).
- (4) 이 뿐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을 지냈으며 A. D. 62년경 공회에서 정죄받아 돌에 맞아 순교했다(Eusebius of Caesarea).
- (5) 이러한 내력을 지니는 야고보는 본절에 사도로 칭함을 받았다.
- (6) 이것은 그가 비록 예수의 12사도에 들지는 못했지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권위 있는 지도자들 중 하나로서 사도와 같이 취급받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참조, 행 14:14 ; 고전 15:7-10).

19. ㉠ 21, 22절에 나오는 장소들은 어떤 곳인가?

- ㉠ (1) 수리아(Syria) : 팔레스틴 북쪽 지방을 가리키는 말로 유브라데 강, 소아시아, 아라비아 사막, 베니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지역의 중요한 도시로는 갈그미스, 알레포, 우가릿, 두로, 시돈, 하맛, 가데스, 다메섹 등이 있다.
- (2) 길리기아(Cilicia) : 소아시아의 동남부 연안 지대로 그 동쪽은 아마누스(Amanus) 산맥, 북쪽과 서쪽은 타우루스(Taurus) 산맥, 남쪽은 지중해에 의해 경계지어져 있다. 특히 이곳의 서쪽 산악 지대는 '길리기아 트라키아(Tracheia)', 동쪽 비옥한 평원, 지대는 '길리기아' 베디아스(Pedias) 라고 불리었다.
- (3) 유대(Judea) :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유대인이 거주한 지역으로 (스 5:8)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반경 20km 이내의 지역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 말이 넓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포함한 팔레스틴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 된다. 본절에서는 전자(前者)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4) 한편 바울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지역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였다(행 13:2-21:17).
- (5) 이러한 사실은 복음 전파에 대한 그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 것이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참조, 마 28:19, 20).

20. ㉠ 바울의 초기 사역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22-24절)

- ㉠ (1)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그의 공생애 초기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했다(21절).
- (2) 따라서 당시 유대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였다(22절). 다만 소문을 통해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23절).
- (3) 이와 같이 바울은 초기 사역 기간에 비교적 이름도 없이 일했다.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유명한 전도 여행에 나서게 된 것은 매우 오랜 후의 일이었던 것이다.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로 인해 만족해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24절).
- (5) 그러나 흔히 교회 내의 유력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신자로서 하는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마 6:33).

본장의 요절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10절).

제 2 장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

단락구분 1-5 율법을 능가하는 복음의 원리 / 6-10 이방인 사도 바울 / 11-15 바울이 외식하는 베드로를 꾸짖다 / 16-17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 / 18-21 믿음 안에 사는 자는 은혜로 의롭게 된다

1 십사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2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운 한 것은 내가 달음질하는 것이나 달음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3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4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5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6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치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7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말씀과 같이 한 것을 보고

8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9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케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10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11 케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12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4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좃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15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7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내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8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19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1) 본장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 첫 부분(1-10절)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을 보여 준다.

(2) 그리고 둘째 부분(11-21절)은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도 베드로를 만나 그가 율법적인 외식 행위를 책망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 (3) 특별히 이 둘째 부분의 내용 가운데에는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가 강조되어 있다.
- (4) 이상과 같은 내용을 지니는 본장은 전체적으로 사도로서의 바울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했음을 증거해 준다.

2. **㉠** ‘십 사 년 후에’라는 말이 함축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 (1) 여기서 말하는 14년의 기간은 바울이 회심한 때를 기점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1:17, 18에 언급된 예루살렘 방문을 기점으로 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 (2)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전자(前者)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Lightfoot, Meyer, Bengel, Zahn, Burton).
- (3) 이 견해를 따를 때 바울이 ‘십 사 년 후에’ 행한 예루살렘 방문은 행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A. D. 49)에 참석키 위한 방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 (4) 어느 견해를 취하든지 간에 ‘십 사 년 후에’라는 말은 바울이 14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무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 (5) 이러한 사실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주(主)의 사도들과 동등한 권위를 가졌음을 시사한다(1:11, 12).

3. **㉠** 바울과 더불어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 방문의 목적과 동기는 무엇인가? (1-3절)

- ㉠** (1) 바울은 이번 여행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갔다(1절).
- (2) 여기서 바나바는 바울의 전도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행 13:1-7; 14:1) 바울의 동역자로서 예루살렘 여행에 동참하였다.
- (3) 그러나 디도의 경우는 달랐다. 바울이 디도를 이번 여행에 데리고 간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율법을 행함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의 교훈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 (4) 다시 말해 바울은 이방인 개종자요, 무할례자인 디도를 수행케 함으로써 율법의 행함을 주장하는 유대 기독교인들도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인정하도록 배려했다(참조, 행 11:27-30).
- (5) 한편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직접적인 동기는 ‘계시’, 즉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2절).
- (6)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요 축복이다(참조, 수 1:8; 약 1:25).

4. **㉠**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무엇을 행하였는가? (2절)

- ㉠** (1) 그가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에 대하여 신실하게 설명하였다. 이렇게 행한 이유는 그가 전하는 은혜의 교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게 될 때 바울의 전도 활동이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 그런데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제출함에 있어서 ‘유명한 자들’ 곧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권위있는 유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사사(私私)로이’ 하였다.
- (3)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나 율법에 열심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허다한 무리들의 논쟁과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복음 증거에 큰 장애가 되는 일을 사전(事前)에 방지하려고 했기 때문이다(참조, 행 21:20-24).
- (4) 우리는 이상과 같은 바울의 조처를 통해 그의 신증성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다(참조, 딤후 6:11, 12).

5. **㉠** 할례에 대해 바울이 취한 자세를 디도의 경우를 들어 설명하라(3절).

- ㉠** (1) ‘할례’는 구약의 족장 시대 이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로 행해지는 종교 의식이

다(창17:9-14).

- (2) 그런데 이 할례의 시행 여부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초대 교회 당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 (3) 즉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인 안디옥 교회의 유대인들(행11:26) 가운데 어떤 이들이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행15:1)고 주장한 것이다.
- (4) 이때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났다(1절).
- (5) 그런데 당시 바울은 이방인이었지만 할례를 받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된 디도를 데리고 갔다(참조, 딤후1:4).
- (6) 바울이 이와 같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한’ 것은 어떤 의식이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역설하고자 한 것이다(참조, 롬4:9-13).

6. **Q**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는 어떤 사람이며 바울은 이런 자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했는가? (4, 5절)

- A** (1) ‘거짓 형제’(헬, 프슈다텔푸스)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체하는 자들’(Living Bible, some so-called “Christians”)을 가리킨다.
- (2) 이들의 특성은 그리스도 교회를 약화시키고 망하게 하는 파괴적 행위를 일삼는 것이다(참조, 벧후2:1).
- (3) 즉 이들은 율법주의를 고수하는 유대인들로서 율법의 행함과 관계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적 진리를 배격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하였다(4절; 고후11:26).
- (4) 바울은 이와 같은 거짓 형제들의 간계를 꿰뚫어 보고 있었으므로 결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였다(5절). 왜냐하면 순수한 복음이 유대주의와 결합됨으로 생기는 부패를 막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모든 이단 사상으로부터 복음의 순수성을 수호하는 것은 그리스도 교회에 주어진 의무이다(참조, 빌1:7, 16).

7. **Q**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는 무슨 뜻인가? (6절)

- A** (1) ‘유명한 이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로서 특별히 8절에 언급된 야고보, 베드로(게바), 요한 등을 가리킨다.
- (2) 이들은 바울과 달리 예수를 그의 생전에 직접 본 사람들이요, 직접적으로 사도의 명분을 받은 사람들이었다(‘주의 형제 야고보’의 경우는 1장 **Q**18을 참조하라).
- (3)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과 ‘상관이 없으며’, 그들이 자기에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
- (4) 이는 바울이 그들로부터 복음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도 지시받은 것이 없음을 의미한다.
- (5) 결국 본질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1:11, 12).

8. **Q** 바울은 자신을 베드로와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가? (7, 8절)

- A** (1) 바울은 하나님께서 무할례자,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자기에게 주셨다고 말한다(참조, 행9:15; 롬1:5).
- (2) 반면 할례자 곧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은 베드로에게 주어졌다고 말한다.
- (3) 즉 복음은 동일하지만 그 복음을 받는 대상만 다른 것이다.
- (4)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든 복음이 세상 땅 끝까지 전파되리라

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참조, 마24:14; 눅24:47; 행26:17, 18).

9. **㉠**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란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9절)

- ㉠** (1) '기둥' (헬, 스톨로이)은 시문학적(詩文學的)인 표현으로 중추 역할을 하는 것을 상징한다(참조, 삼상3:8; 딤후3:15; 계3:12).
- (2) 이렇게 볼 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초대 교회에 있어서 야고보(1:19)와 베드로('게바'는 베드로의 별명임)와 요한이 집의 기둥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 (3)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본절에 기록된 인물들의 순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 (4) 즉 바울이 유대인에 대한 전도를 이야기할 때는 위대한 전도자 베드로가 두드러져 있고, 야고보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는다(7, 8절).
- (5) 그러나 본절에서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특정한 공식 조치를 다룸에 있어서는 그 공회의 의장인 야고보가 먼저 언급되고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이 다음에 나오고 있다.

10. **㉠**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9절)

- ㉠** (1) '교제'로 번역된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성령의 역사(役事)로 이루어지는 바, 인간 상호간의 가장 친밀한 교제를 뜻한다(참조, 요일1:3).
- (2)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 야고보, 베드로 그리고 요한 등과 교제의 악수를 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같은 동역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 (3) 아울러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함당히 여긴다는 표시로 바울과 교제의 악수를 하였다.
- (4) 이상과 같은 사실은 바울이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선동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허황된 말임을 보여 준다.

11. **㉠** 바울이 다른 사도들의 부탁에 따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 사실은 어떤 교훈을 주는가? (10절)

- ㉠** (1) 본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이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말한다(참조, 롬15:26).
- (2) 당시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지방에는 기근이 들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다(참조, 행11:28-30).
- (3) 그래서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저희의 처지를 알리고 그의 이방인 교회들과의 친분 관계를 활용하여 구제 사업에 동참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 (4) 이때 바울은 께히 그 요구를 수락하였으며, 실제 갈라디아나 고린도 교회 등의 이방 교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을 돕도록 배려하였다(고전16:1-3; 고후9:1-3).
- (5) 이러한 사실은 바울의 자비롭고도 관용 있는 성품을 보여 준다.
- (6) 즉 당시 유대교에서 개종한 많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개종한 이방 기독교인들을 무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유대 기독교인들을 구제하는 데 발벗고 나선 것이다.
- (7) 여기서 우리는 우리와 가까운 이해 관계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밖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베풀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받는다(참조, 행4:32-37; 9:36).

12. **㉠**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와 그 의미는 무엇인가? (11-14절)

- ㉠** (1) 초대 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기독교인들의 중심이 되는 교회인 것같이 안디

옥 교회는 이방 기독교인들의 중심 교회였다.

- (2)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일을 맡아 보던 베드로는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기독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 (3) 당시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바 있으므로(행10장)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이방 교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과 자리를 같이한 것이다.
- (4) 그러나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1:19)가 보낸 유대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에 도착하였을 때 베드로는 식사 자리에서 슬그머니 피하였다(12절).
- (5)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들과 식사했다는 이유로 율법주의적 경향이 농후한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했던 것이다.
- (6) 이와 같은 베드로의 행위는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 교회들에게 대단한 슬픔과 실망을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 선교에 앞장섰던 바나바를 포함한 선량한 유대인들까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다는 외식적 행위를 취하게끔 하였다.
- (7) 따라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와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였다(14절).
- (8) 이러한 사실은 사도 바울의 권위를 입증해 줌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참조, 창15:6)에 입각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한다.

13. **㉠** 베드로의 외식적인 행동은 무엇을 교훈하는가? (14절)

- ㉠** (1)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공의회(A. D. 49)를 통해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인정되었다(참조, 행15장).
- (2) 그런데 예루살렘의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의 이방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자 자리를 피한 사실은(12절) 그러한 공의회의 결정을 그릇된 결과가 된다.
- (3) 즉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분리시키는 모세 율법의 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무너졌음을 알면서도 율법을 행치 않는 이방 신자와 자리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외식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
- (4) 사실상 이러한 베드로의 행위는 만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기독교 공동체에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행위와 같았다.
- (5) 아울러 이것은 민족이나 전통을 복음의 진리보다 중요시 여기는 그릇된 행동이었다.
- (6) 이와 같은 베드로의 실수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복음의 정신을 삶의 영역에서 실천해야 할 것을 교훈한다(참조, 마5:13-16).

14. **㉠** 15절에 기술된 '유대인' 과 '이방 죄인' 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 ㉠** (1) 바울은 '유대인' 이란 말을 어떤 우월감이나 절대적인 선민 의식(選民意識)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 (2) 유대인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창12:1-3)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으며(출12:31-42), 십계명과 그 외 많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출20-22장).
- (3)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유대인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방인들보다 더 많이 부여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 (4)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성도들은 불신자에 비하여 어떤 우위(優位)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버려야 할 것이다(참조, 고전10:12).
- (5) 예를 들면 술이나 담배를 안 한다. 십일조를 바친다 등등의 행위를 자랑스럽게 드러내며 또 남에게 강조하는 행위는 아직 유대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증거인 것이다(참조, 눅

18:11, 12).

- (6) 그러나 믿음 없는 율법적 행위가 결코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롬3:19;8:3;엡2:15;히7:19).
- (7) 한편 본절에 나오는 '이방 죄인'은 이방인이 유대인과 같이 모세 율법과 그밖의 여러 유전(遺傳)을 가지지 않았음을 표시할 뿐이지 이방인만이 모두 죄인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참조, 롬2:14, 15).
- (8) 그러므로 모든 유대인은 의인이요, 모든 이방인은 죄인이라는 판단이 성립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 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죄인인 것이다(참조, 롬3:10-20).

15. **㉠** 바울이 말하는 이신 득의(以信得義)의 교리에 대해 설명하라(16절).

- ㉠** (1) 본절에 '의롭게 되다'로 번역된 헬라이어 <디카이오오>는 법정 용어로 '의롭다거나 무죄라고 선언하다'라는 뜻이다.
- (2) 이 말의 반대어는 '정죄하다', '유죄를 선고하다'를 의미하는 <카타크리노>이다(참조, 롬2:1;8:34).
- (3)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롬3:23)고 말한다.
- (4)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다고 선언한다(참조, 창15:6).
- (5) 이런 의미에서 '칭의'(稱義)는 사람의 윤리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법적 조치를 표현하는 말이다.
- (6) 즉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조치에 따라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참조, 빌3:9;히10:38;11:4).

16. **㉠**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17절)

- ㉠** (1)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한 바울의 새로운 생애(행9:1-9)는 '그리스도 안에서'(헬, 엔 크리스트) 이루어졌다.
- (2)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바울 신학의 기본어로 그의 서신에 164회 나온다.
- (3) 그런데 이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함2:4;롬1:17;3:30, 31)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 (4)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참조, 엡2:8;3:12).
- (5) 따라서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 (6) 성도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난관을 타개하고 승리할 수 있다(참조, 롬8:16-18;벧전4:11).

17. **㉠**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은 무슨 뜻인가? (18절)

- ㉠** (1) '헐었던 것'은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 헐었던 '율법'을 가리킨다.
- (2) 그렇다면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은 '율법을 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그 율법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로 삼는다면'이란 뜻이다.
- (3)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은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베드로의 행동(12절)을 암시하고 있다.
- (4) 베드로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한 후에 다시 율법주의에 빠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박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참조, 히6:4-6).

18. **㉠**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활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19, 20절)

- Ⓐ (1) 바울은 과거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애썼으나 오히려 죽게 되었다.
- (2) 그러나 이제는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믿고 전적으로 그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었다(19절).
- (3) 이러한 삶은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죄의 권세로부터 분리되는 자유로운 삶이요, 그리스도께서 내주(內住)하시는 새로운 삶이다(참조, 고후5:7).
- (4) 더 나아가 이 삶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회복하며 새 생명으로 덧입게 되는 부활의 삶이다(참조, 롬6:6).
- (5) 이러한 사실은 바울 사도 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고백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롬4:25; 벰전2:2-25).

19. ⓐ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21절)

- Ⓐ (1) 성경은 ‘의(義)란 인간의 덕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롬1:17).
- (2)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긴다(참조, 롬10:3).
- (3) 이와 같이 자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자들이다.
- (4) 이러한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중세 스콜라 철학 그리고 현대 실존주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부과된 삶의 제문제들을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
- (5) 교회는 마땅히 그와 같은 사조(思潮)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딤후2장).

화보자료

수리아 안디옥의 풍경. 현재 안타키아(Antakya)로 불리우고 있는 수리아 안디옥의 모습이다. 마을 앞으로 흐르고 있는 강은 오론텔스(Orontes) 강이다.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행11:19)과 비시디아 안디옥(행13:14)이 있는데 본장에 언급되고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다(11절). 이곳은 바울의 중요한 선교 기지였는데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 받았던 곳도 바로 이곳이다(행11:26).

제 3 장 율법과 믿음의 관련성

단락구분 1-5 율법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 / 6-9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전례 / 10-14 율법의 저주와 복음의 축복 / 15-18 율법보다 앞선 구원의 약속 / 19-22 율법은 약속을 위한 일시적 방편이다 / 23-29 그리스도에게도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 율법

1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2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나 듣고 믿음으로나

3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4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들었고 믿음에서나

6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8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희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9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0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1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12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4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15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16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17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 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18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19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나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증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20 증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21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22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23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5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26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1. ㉠ 본장의 개요를 말하라.

- ㉠ (1) 저자는 전장까지에서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의 선동으로 비롯된 갈라디아 교회의 혼란 상태를 정리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였다.
- (2) 이제 본서신의 본론부에 해당하는 본장에서 저자는 복음적 신앙에서 속히 떠난 갈라디아 교인들을 엄히 꾸짖으면서 복음과 율법의 관련성 및 율법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 (3) 이로써 저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버린 이신 득의(以信得義)의 진리를 재정립한 것이다.

2. ㉠ 갈라디아 교인들의 행동이 어리석은 이유는 무엇인가? (1,2절)

- ㉠ (1) 바울은 보통, 서신의 서두에서 ‘사랑하는 자들아’(헬, 아가페토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고후 7:1; 빌 4:1) 여기서는 ‘어리석도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 (2) 이 ‘어리석도다’에 해당하는 헬라어(아노에토스)는 생각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행동을 가리키는 데 쓰인다(참조, 눅 24:25; 롬 1:14; 답전6:9; 딤후 3:3).
- (3) 이렇게 볼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리석은 이유는 첫째, 그들이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저버리고 거짓 교사들의 율법적인 가르침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1:6).
- (4) 그 둘째 이유는, 바울이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보다 율법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이다(1절).
- (5) 세번째 이유는, 그들이 처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였으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할 터인데 오히려 형식적인 율례에 따라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참조, 5:4).
- (6) 바울이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한 것은 그들을 욕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그들의 우매함을 깨우치기 위함이었다(참조, 딤후 2:15).

3. ㉠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무슨 뜻인가? (3절)

- ㉠ (1) 이 말은 ‘처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나, 이제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완성하고자 하느냐’는 뜻이다.
- (2) 실제 이 말은 율법의 준수를 주입시켰던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두고 한 표현이다.
- (3) 이 같은 어리석음은 현대 교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처음에 신앙으로 출발하였으나 나중에 가서는 물욕과 정욕에 휩싸여 망케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 위주로 살아가야 전전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참조, 고후 8:6; 빌 1:5,6).

4. ㉠ 4절에 나오는 ‘많은 피로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1) ‘많은 피로움’에 해당하는 헬라어(토사우타)는 문자적으로 ‘많은 것들’을 의미한다(KJV, RSV, so many things).
- (2) 이 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 왔다.
- ①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고난과 핍박(Meyer, Vincent)
- ②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De Wette)
- ③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고난(Augustine, Zahn, Lightfoot)
- ④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에 관련하여 겪은 체험(Moffatt, Stamm)
- (3) 이러한 해석들은 각각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직접적인 문맥을 살펴볼 때 ④의 해

석이 가장 타당한 듯하다.

- (4) 즉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서 기적(참조, ㉠ 5)을 행하셨다는 5절의 내용은 ④의 해석을 뒷받침한다(NEV, 공동 번역, '여러분이 겪은 그 모든 경험').

5. ㉠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5절)

- ㉠ (1) '능력'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네르곤>은 '이적들' (공동 번역, KJV, RSV, miracles)을 뜻한다.
- (2) 이렇게 볼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바울에 의하여 전해진 복음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갖가지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하였음을 알 수 있다(참조, 행 13:11; 14:8-10).
- (3) 이러한 이적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다(참조, 시 145:20).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율법에 맹종하는 그릇된 신앙을 추구하고 있었다(참조, 1:6).
- (5) 여기서 성도들은 자기의 신앙이 그릇된 교리에 의해 변질되었나 살펴보고 항상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상기할 것을 교훈받아야 한다(참조, 계 2:4, 5).

6. ㉠ 바울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한 동기는 무엇인가? (6-9절)

- ㉠ (1)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관해 잘 알고 있었다.
- (2) 바울이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생애를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는 유대인들이(참조, 서론 ㉠ 2) 아브라함에 관해 자세히 알려 주었던 것이다(참조, 행 13:17; 롬 4:1-25).
- (3)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율법적 규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에 휩쓸리게 되었다(참조, 5:3, 4; 6:12, 13).
- (4) 바울은 이같이 그릇된 교리에 오염된 갈라디아 교인들의 오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였다.
- (5) 즉 그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1:7; 2:4) 달리 아브라함조차도 할례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축복받았다고 주장한다.
- (6) 오늘날 성도들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성경을 왜곡되어 이해하는 경우에 빠질까 경계하며 항상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할 것이다(딤후 4:14).

7. ㉠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 칭함 받았는가? (6절)

- ㉠ (1)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모세 율법이 없었다(참조, 17절). 이 모세 율법은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다(참조, 출 20:1-23:33).
- (2)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다(참조, 창 15:6).
- (3) 한편 약 2:20-23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독자(獨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행위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4) 그러나 여기서의 행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믿음의 행위'이다. 즉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를 보인 것이다(참조, 롬 6:17).
- (5) 따라서 본절과 야고보서의 기록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 (6) 성도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참조, 신 26:16; 32:46).

8. ㉠ 어떤 자가 아브라함의 아들인가? (7절)

원래의 의의는 믿고
인간의 행위로는 안됨

- Ⓐ (1)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여기서 아브라함의 육적(肉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킨다(참조, 뱀전 2:10).
- (2)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참조, 히 11:8).
- (3) 마찬가지로 믿음에 의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누리게 된다(9절).
- (4) 그러나 아무리 경건한 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참조, 요일 5:4).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뿐임을 명심해야 한다(참조, 롬 4:16).

9. ⓐ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8절)

- Ⓐ (1) 이 말씀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는 창 12:3의 인용이다.
- (2)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원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 (3) 오히려 이 말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은 어느 개인만의 특권이나 독점물이 아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함께 누리는 것이다(참조, 행 13:38, 39).
- (5) 따라서 성도들은 타인에 의하여 배타적이거나 폐쇄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행 11:1-18)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선교적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막 16:15).

10. ⓐ 8,9절에 나오는 ‘복(福)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 Ⓐ (1) 구약에 나타난 복(히, 베라카)의 개념은 건강, 장수 등과 관계되는 바 다분히 현세적이며 물질 중심적이다(참조, 시 128편 연구 자료).
- (2) 반면 여기서 말하는 복(헬, 율로기아)은 영적인 의미를 지닌다.
- (3)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리킨다(참조, 뱀전 3:9).
- (4)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 구원의 복을 받는다(요 3:16; 골 1:14).
- (5) 이러한 복은 인간의 공적으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참조, 창 12:1-3).

11. ⓐ 율법의 역할과 기능 및 그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라(10-14절).

- Ⓐ (1) 율법은 고발적인 기능을 가진다(Calvin). 율법의 원리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10절). 왜냐하면 율법은 그것을 전적으로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신 27:26; 롬 2:13).
- (2) 또한 어느 누구도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11절). 그 이유는 율법 자체가 인간은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합 2:4; 롬 1:17; 히 10:38).
- (3) 이는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역할을 지닌 것과 관계가 있다(레 19:18; 신 6:4, 5). 율법은 본래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는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참조, 시 19:7; 롬 7:12, 14; 13:10; 딤후전 1:8).
- (4) 그러나 인간은 그와 같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보다는 점점 더 완악해져서 단순한 법규 이행에 만족하며 자만하는 죄악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참조, 사 24:5; 33:8; 렘 11:10; 22:9; 겔 44:7; 롬 1:31, 32; 히 8, 9).
- (5)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시며,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신 21:23; 사 53

:4, 5, 11, 12; 뱀전 2:24).

(6) 성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늘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참조, 요 13:34, 35).

12. ㉠ ‘속량(贖良)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3절)

- ㉠ (1) ‘속량하셨으니’로 번역된 헬라어 (엑사고라조)는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풀어준다’는 뜻이다(NIV, RSV, redeemed).
- (2)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종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셨다(참조, 4:5; 행 20:28; 뱀전 1:18, 19).
- (3)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참조, 신 21:23).
- (4) 이 같은 의미를 지니는 십자가의 구속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되어진 일이다(참조, 요 3:16; 롬 5:8).
- (5)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잊고 있었다(1:6).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빈번히 일어난다.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관념적(觀念的)인 것이 아니요 실존적(實在的)인 것이다(참조, 요 20:25-28). 따라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전적으로 믿음으로 자신의 온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해야 한다(비교, 마 23:27).

13. ㉠ ‘성령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14절)

- ㉠ (1)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행 1:4)고 말씀하셨다.
- (2)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보혜사(保惠師)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의미이다(참조, 요 14:16-18).
- (3) 구체적으로 이 약속의 말씀은 오순절(Pentecost)에 성취되었다(참조, 행 2:1-4).
- (4) 한편 성령의 역사(役事)는 구약 시대에도 있었다(참조, 삿 6:34; 11:29; 13:25; 삼상 10:9, 10; 16:13; 대상 12:8).
- (5) 그러나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使役)을 위하여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 임했으며, 일시적인 것으로서(참조, 민 27:18; 단 4:8; 6:3; 삼상 16:14) 신약 시대 성령의 역사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다.
- (6) 즉 신약 시대 오순절 사건 이후로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심령에 영원히 내주하신다(참조, 요 14:16).
- (7) 이제 본절은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함께 하여 주심을 말하고 있다.
- (8) 성도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믿음임을 알아야 한다(참조, 행 2:38; 고후 1:21; 요일 2:20, 27).

14. ㉠ 아브라함과 언약(약속) 및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라(15-22절).

- ㉠ (1)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점진적인 계시 역사(啓示歷史)를 주도해 오셨다.
- (2) 그 첫번째 구원 사역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만민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하여 주셨다(참조, 창 12:1-3; 15:18; 17:2-8; 22:8).
- (3) 아울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다(참조, 창 17:9).
- (4)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구원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출 12:31-42) 자주 하나님을 시험하며 배신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하였다(참조, 출 15:22-17:7).

- (5)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출 19:1-24:18).
- (6) 이 율법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어진 것이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참조, 신 6:1-25).
- (7) 즉 인간은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악을 깨달을 수 있을 뿐이었다(참조, 롬 3:20;5:20).
- (8) 그러나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19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다(참조, 히 8:7, 8). 즉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그 사명을 다한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으며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참조, 요 14:6;행 16:31).
- (9) 이상에서 볼 때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이미 구약 시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으며, 율법은 그 약속을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 주어졌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 (10) 아울러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임을 밝히 알 수 있다.(참조, 시 25:8;마 19:17). 그러나 현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을 무시하고 땅 위의 인간적인 것에서 구원과 소망을 찾으려는 사상이 범람하고 있다. 성도들은 마땅히 이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참조, 골 2:8).

15. **㉠**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17절)

- ㉠** (1) 이 언약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다(참조, 창 17:7-9).
- (2) 이 언약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만민 구원의 계시가 포함되어 있다(16절;창22:8).
- (3) 특별히 본질은 하나님의 이 언약이 율법보다 앞서 생긴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또 율법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 (4) ‘사백 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 곧 시내 산에서 성립된 모세 율법이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 430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은 그 같은 증거를 확증해 준다(참조, 창 15:13;출 12:40;행 7:6).
- (5)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상과 같은 계시 역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는 약한 교인들을 그릇된 교리로써 오도(誤導)하였다(참조, 1:6;2:4;엡 4:14;딤후 3:8).
- (6) 교회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자들을 경계하고 마땅히 그리스도의 진리를 파수하며(딤후 2:15) 그 진리 안에 굳게 서야 한다(참조, 벧후 1:12).

16. **㉠** 율법은 ‘범법(犯法) 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는 무슨 뜻인가? (19절)

- ㉠** (1) ‘범법함을 인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라바세온 카린>은 ‘죄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가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알게 하기 위하여’를 의미한다(공동 번역, Jerusalem Bible, to specify crimes).
- (2) 이렇게 볼 때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참조, 롬 3:20;5:20).
- (3) 즉 율법은 죄를 죄로서 폭로하며 범법 행위로서 두드러지게 한다(참조, 롬 4:15;5:13).
- (4) 결국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또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24절).
- (5) 한편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속박과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롬 7:1-6).
- (6)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율법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다(참조, 롬 8:21;히 4:16).

17. **㉠** 율법은 어떤 경로를 통해 인간에게 주어졌는가? (19절)

- Ⓐ (1)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참조, 창 15:18).
 (2) 그러나 율법은 ‘중보(仲保)의 손’ 곧 모세와 천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다(참조, 신 33:2; 시 68:17; 행 7:53; 히 2:2).
 (3) 이와 같이 율법의 전달 과정에 중보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언약보다 율법이 저급한 것임을 보여 준다(참조, 딤편 1:9).
 (4)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부여된 언약과 모세 율법이 서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21절).
 (5) 단지 율법은 죄인들의 상처를 드러내나, 언약은 죄를 용서해 주시며 싸매어 주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참조, 히9:8-28).

18. Ⓢ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20절)

- Ⓐ (1) 율법은 중보자를 통하여 전달된 것으로서(19절) 하나님과 사람 쌍방이 그 당사자가 되나, 반면 언약(약속)은 하나님 단독으로 결정되어진 것으로 절대적임을 뜻한다(공동 번역).
 (2) 실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이 되셔서 죄인들을 위한 중보자의 역할까지 담당하셨다(요 1:14).
 (3)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고난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보사하신 것이다(참조, 롬 5:8-10).
 (4) 이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변함없음을 말해 준다(참조, 히 13:8).
 (5) 따라서 성도들은 무력한 인간의 노력에 의존하기 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함이 낫다(참조, 시 37:3-7).

19. Ⓢ 율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22-24절)

- Ⓐ (1)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율법이 ‘우리를 매인 바 되고 가두어 둔다’고 말하고 있다.
 (2) 여기서 ‘가둔다’로 번역된 헬리어 <성클레이오>는 ‘감금한다’는 뜻이고(KJV, shut up). ‘매인 바 된다’로 번역된 헬리어 <프루레오>는 ‘가두어 보호한다’는 의미이다(Living Bible, were guarded).
 (3)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율법이 마치 옥리(獄吏)처럼 인간을 가두어 잘못을 범치 않도록 지키는 소극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 준다(참조, 19절).
 (4) 여기서 더 나아가 율법은 인간을 그리스도께도 인도하여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24절).
 (5) 이상에서 볼 때 성도들은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참조, 롬 10:9, 10).

20. Ⓢ 바울은 율법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가? (24절)

- Ⓐ (1) 그는 율법을 ‘몽학 선생’(蒙學先生)으로 비유하고 있다.
 (2) 여기서 ‘몽학 선생’에 해당하는 헬리어 <파이다고고스>는 영어 단어 ‘pedagogue’의 어원(語源)으로 문자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하는 사람’ 또는 ‘어린이를 시중드는 사람’이란 뜻이다.
 (3) 실제 이 말은 어린아이가 학교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하는 일을 책임진 노예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4) 즉 이 노예는 말은 아이를 대략 6세부터 16세가 될 때까지 책임지는데, 어린아이가 가는 곳은 어디나 따라다니면서 그의 행동을 감시하고 학교에 갈 때나 돌아올 때 그를 인도해야만 했다.

- (5) 그러므로 <파이다고고스>는 원래 가르치는 일은 하지 않았다. ‘가르치는 자’ 곧 ‘선생’을 뜻하는 헬라이어 <디다스칼로스>가 따로 있었던 것이다(참조, 눅 2:46; 요 1:38; 롬 2:20).
- (6) 위에서 볼 때 ‘몽학 선생’으로 비유된 율법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아니요, 간접적인 계시로서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도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이 될 때까지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참조, 엡 2:15; 히 7:19).
- (7) 한편 바울은 여기서 역설적으로 믿음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사람이 성숙한 어른이 되기까지 어린아이의 과정을 거치듯이 신자가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기까지는 율법에 의해 ‘그리스도도(道)의 초보’(히 6:1)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이다(참조, 고전 13:11).
- (8) 그러나 신자들은 부단히 믿음의 훈련을 받음으로 성숙한 신앙에 이르도록 힘써야 한다(참조, 딤후 6:11-14; 히 5:12-14).

21. ㉠ 예수 그리스도도를 믿음으로 초래되는 결과는 무엇인가? (26-29절)

- ㉠ (1) 바울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도를 믿으면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과가 뒤따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 (2) 첫째로,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영적으로 유아기를 거쳐 완전한 성숙기에 도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26절).
- (3) 둘째로,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에서 인종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의 구분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된다(28절; 엡 2:11-18).
- (4) 셋째로,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도와 연합에 의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상속받는다(16, 29절).
- (5) 이상과 같은 사실은 율법을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그리스도도와 연합할 필요성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역설한 것이다(참조, 1:7; 2:4).
- (6) 한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발생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도들의 믿음을 저해하는 자들이 있다.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이 그 대표적인 자들이다. 성도들은 이와 같은 자들의 그릇된 교리들은 주의하며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遜色)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참조, 벡후 2:1-3; 유 1:3).

22. ㉠ ‘그리스도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도로 옷 입었느니라’는 어떤 의미인가? (27절)

- ㉠ (1) 여기에 언급된 ‘세례’는 단순히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말한다(참조, 마 3:6; 요 1:32).
- (2) 이 성령 세례는 불신앙하던 옛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한다(참조, 고후 5:17; 엡 4:24).
- (3) 또한 ‘그리스도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도의 사람으로서 흠없고 순전한 생활을 한다는 뜻이다(참조, 롬 13:13, 14).
- (4) 그런데 이 같은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인침을 받기 전에는 불가능하다(참조, 행 10:38).
- (5) 따라서 성도들은 그리스도도와 연합하여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요 3:5).

제 4 장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호소

단락구분 1-3 율법 아래 있던 세상 / 4-7 아들의 명분(名分)을 얻게 하신 그리스도의 구속 / 8-11 율법의 속박에 매인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 / 12-16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 품었던 사랑 / 17-18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 / 19-20 바울의 애정어린 충고 / 21-31 자유자와 종으로 비유된 두 언약

1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3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을 하였더니

4 때가 차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8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9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10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11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12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돕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3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15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면 너희의 눈이라도 뻐어 나를 주었으리라

16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므로 원수가 되었느냐

17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18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있을 때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19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20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21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니

23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25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26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7 기록된 바

임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28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29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꺾박한 것같이 이제도 그러하

도다

30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 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

리라 하였느니라

31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1. **㉠ 본장의 개요를 말하라.**

- ㉠** (1) 본장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후사가 된(1-7절)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의 과거와 현재 관계(8-20절) 그리고 율법과 은혜에 대한 두 언약의 역사적인 설명(21-31절) 등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 (2) 바울은 첫 부분에서 종의 신분과 자유자의 신분을 대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써 자유를 누리게 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강조하고 있다.
- (3) 둘째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대립하여 모세 율법을 옹호한 유대주의 교사들의 선동에 의해 복음에서 떠난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한편 그들이 바울의 육체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복음을 열렬하게 받아들였던 아름다운 모습들을 상기시키고 있다.
- (4) 셋째 부분에서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들과 율법을 신뢰하는 유대교에 치우친 자들의 차이를 설명하는 동시에 진리를 떠나 복음의 자유를 상실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다.

2. **㉠ 바울이 제시한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1-7절)**

- ㉠** (1)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는 생활을 하게 된다.
- (2) 즉 율법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참자유가 없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6, 7절).
- (3)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다(2:20; 골 3:1, 2).
- (4) 성도들은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참조, 히 12:1, 2).

3. **㉠ 바울은 율법을 무엇으로 비유했는가? (1, 2절)**

- ㉠** (1) 그는 율법을 ‘후견인(後見人)과 청지기’로 비유했었다.
- (2) 여기서 ‘후견인’(헬, 에피트로푸스)이란 ‘가정 교사’(KJV, tutors)나 ‘보호자’(RSV, NIV, guardians)를 뜻하며, ‘청지기’(헬, 오이코노무스)는 주인의 뜻을 받아 주인의 재산과 노예들을 ‘다스리는 자’(KJV, governors; RSV, NIV, trustees)를 뜻한다.
- (3) 이러한 비유는 로마 시대에 14세까지의 아들은 부친이 의뢰한 후견인 아래 있었고, 25세까지 재산의 관리권은 청지기에게 일임되었던 사실을 배경으로 한다(참조, 눅 12:42; 16:1).
- (4) 이와 같이 후견인과 청지기는 주인의 아들을 대신하여 권한을 대행하나 그 아들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으며, 실제 아무런 자유도 갖지 못했다.
- (5) 그러므로 아들의 지위는 노예와 다를 바 없었던 것이다(1절).
- (6) 이와 같은 아들과 후견인 및 청지기와의 관계는 율법과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에 비유(比類)된다.
- (7) 즉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종의 위치에 있게 된다(참조, 3:23, 24).
- (8) 그러므로 성도들은 율법의 명에서 벗어나 그리스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5:1; 롬 8:21).

4. ㉠ ‘초등 학문’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3절)

- ㉠ (1) ‘초등 학문’으로 번역된 헬라어 (스토이케이아)는 바울의 독특한 용어로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 왔다.
- ① 알파벳의 글자 곧 어떤 분야에 있어서의 기초적인 지식(참조, 히 5:12).
 - ② 사물의 구성 요소, 즉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불, 공기, 땅, 물(참조, 벧후 3:10).
 - ③ 해와 달과 별 등을 포함하는 보다 큰 우주의 요소(참조, 벧후 3:10, 12).
 - ④ 천체들을 움직이게 하며 하늘과 땅의 모든 공간에 존재한다고 믿어지는 모든 영과 천사들과 마귀들.
- (2) 본질의 경우 (스토이케이아)는 ① 과 ④ 의 뜻, 곧 종교적으로 미숙한 지식(Jerome, Tertullian, Calvin, Lightfoot)과 천체 숭배를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가(Ambrose, Augustine, Chrysostom) 지배적이다.
- (3) 이렇게 볼 때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주의나 이방인의 천체 숭배 및 우상 숭배나 그밖에 그리스도 신앙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의식과 사상들을 ‘초등 학문’이라는 개념 속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참조, 9, 10절; 롬 8:38).
- (4) 즉 바울은 그리스도 신앙 이외의 모든 다른 우상적인 것들을 유치한 것으로 취급하였다.
- (5) 이와 같은 바울의 신앙관에 따라 성도들은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을 버리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참조, 엡 6:10-12).

5. ㉠ ‘때가 차매’라는 표현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4절)

- ㉠ (1) 그리스도의 초림이 때가 차매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몇 가지 역사적인 요인을 함축하고 있다.
- (2) 첫째, 당시 로마 지배하의 평화가 대부분의 문명 세계에까지 확장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교통과 통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 (3) 둘째, 당시 로마의 공용어로서 모든 지역에 널리 퍼진 헬라어가 여러 지방들을 밀접하게 연결시켜 주었다.
 - (4) 셋째, 당시 세상은 도덕적 혼란 속에 빠져 있었다. 이교도들까지도 그러한 혼란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쳤으며 모든 곳에 영적인 기근 상태가 만연해 있었던 것이다.
 - (5) 이와 같은 시대적인 배경은 그리스도께서 최상의 시기에 오셨으며 동시에 초기 기독교의 복음 전파가 매우 적절한 때에 이루어졌음을 말해 준다.

6. ㉠ 바울의 그리스도론을 간략하게 논하라(4, 5절).

- ㉠ (1)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신(神)이시다(참조, 요 1:1, 2; 빌 2:6, 7; 골 1:15).
- (2) 또한 예수께서는 ‘여자에게서’,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셨으므로 인간적인 존재이다(마 1:18-25; 요 1:14; 빌 2:8).
- (3) 그리고 예수께서는 ‘율법 아래’ 있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눅 2:21), 유월절 절기를 지키셨으며(눅 2:41; 요 2:13) 그 밖의 모세 율법을 지키면서 자라나셨다.
- (4) 더 나아가 예수께서는 율법의 속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참조, 3:13) 하나님이 그들을 아들로써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주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참조, 빌 2:8).
- (5) 위에서 볼 때 바울의 그리스도론은 구원론과 직결되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특권임을 강조하고 있다(참조, 요 1:12; 롬 9:4).
- (6) 성도들은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권(sonship)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참신이자

참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에 대해 감사하는 생활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참조, 살전 5:18).

7. **㉠** ‘아들의 영’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6절)

- ㉠** (1) ‘아들의 영’은 ‘하나님의 영’(롬 8:14), 또는 ‘그리스도의 영’(롬 8:9), ‘예수 그리스도의 영’(빌 1:19), ‘진리의 영’(요 14:17) 등으로 불리어지는 바 ‘성령’을 가리킨다(참조, 시 51:11; 마 10:20; 롬 8:2; 히 9:14).
- (2) 성령이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어지는 사실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 이유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본질상 하나이기 때문이다(참조, 마 28:19; 고후 13:13).
- (3) 한편 성령은 신약 시대 오순절 이후에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며(롬 5:5) 또 영원히 내주하신다(요 14:16).
- (4) 그러므로 성령의 부재(不在)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이다(롬 8:9).
- (5) 성도들은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아(참조, 고후 1:21; 요일 2:20, 27) 죄에 대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참조, 엡 4:30).

8. **㉠**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게 된 유래에 대해 말하라(6절).

- ㉠** (1)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경우 하나님은 그 백성의 ‘아버지’라고, 백성은 ‘그의 아들’이라 불리웠다(참조, 출 4:22; 신 14:2; 시 103:13; 사 63:16; 64:8; 렘 3:19; 호 11:1).
- (2)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라는 호칭은 상당히 오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3) 그러나 이러한 호칭이 대중화된 것은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이다(Lohmeyer, Jeremias).
- (4) 예수 당시에는 하나님을 직접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을 불경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 (5)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나 기도하실 때 빈번히 이런 식의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다(참조, 마 5:45, 48; 6:1, 9, 18; 7:11, 21; 11:25; 26:39, 42; 막 14:36; 눅 23:34; 요 11:41; 12:27; 17:1, 5, 11, 21, 24, 25).
- (6) 자연적으로 제자들은 이러한 호칭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런 식의 호칭은 초대 교회에서 형식화되고 마침내 대중화되었다.
- (7) 오늘날에도 성도들은 종종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한다. 이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특권인 것이다(참조, 고후 6:18).

9. **㉠**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6절)

- ㉠** (1) ‘아바’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아람어로서 우리 말로는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아빠’ 정도의 의미이다(J. Jeremias).
- (2) 이는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습관적으로 사용한 말로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전해졌다(참조, 막 14:36).
- (3) 그런데 우리가 기록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받은 데 있다(롬 8:15).
- (4) 즉 입으로 부르기는 쉬우나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참조, 고전 12:3).

10. **㉠**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 (8절)

- ㉠** (1) 그들은 복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다.
- (2) 여기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 해당하는 헬라어 <데우신 테오이스>는 문자적으로 ‘신이 아닌 자들’을 의미한다(KJV, RSV, no gods).

- (3) 이렇게 볼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였을 때 우상들을 숭배하였음을 알 수 있다.
- (4) 바울은 그와 같은 상태를 분명히 종 노릇하는 상태 곧 노예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 (5) 한편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며 그것에 절하지도 말라고 엄격히 명령하신 바 있다(출 20:4; 레 26:1; 신 7:25).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해야 할 것이다(요일 5:21). 우상 숭배는 인간의 배교적 본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롬 1:21-25).

11. ㉠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은 무슨 뜻인가? (9절)

- ㉠ (1) 여기서 ‘알다’로 번역된 헬라어 <기노스코>는 ‘사실적으로 알다’를 뜻하는 <오이다>와 ‘무엇인가 지각함으로써 알다’를 뜻하는 <호라오>와 대조적으로, ‘친밀하게 개인적인 수준에서 알다’를 의미한다.
- (2) 이러한 사실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치 않음을 말해 준다.
- (3) 즉 우리는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비로소 부분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참조, 요 15:16; 고전 8:2; 13:12).
- (4)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 (5) 이상에서 언급한 인간의 전적인 영적 무지,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총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셨다는 사실 등은 바울 사상의 주요 골격을 이루고 있다(참조, 롬 3:23, 24; 5:8).
- (6) 아울러 이 같은 바울 사상은 복음주의 신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성도들이 주지해야 할 내용들이다.

12. ㉠ 바울이 ‘악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간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9절)

- ㉠ (1)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 학문’(참조, ㉠4)으로 돌아갔다.
- (2) 바울이 이에 대해 크게 놀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3) 첫째,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들이 이미 겪어 온 것, 즉 새로운 잘못이 아닌 과거의 잘못을 다시 범하고 있었다(참조, 8절).
- (4) 둘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자들’(8절)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허수아비와 같은 비현실적인 존재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다.
- (5) 셋째,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 뒤에 이러한 잘못을 범하였다.
- (6) 이상에서 언급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행위는 배교 행위와 흡사하였다.
- (7)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사도적인 신앙에서 떠나 다시 옛날의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이탈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참조, 딤후 3:7, 8). 이러한 타락에 빠진 사람은 돌이키기 어렵다(히 6:1-8).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참조, 딤후 3:13-17).

13. ㉠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0절)

- ㉠ (1) 날(헬, 헤메라스) : 주로 안식일을 가리키며, 그 외에 특별히 금식하는 날 그리고 하루만 지키는 절기일 등을 포함한다(참조, 눅 18:12; 롬 14:5, 6; 골 2:16).
- (2) 달(헬, 메나스) : 매월 초하루 지키는 월삭(삼상 20:5, 18; 사 66:23)과 중요한 절기로 지킨 달들, 즉 정월로서 추수가 시작되는 아빔 월(출 13:4), 2월이며 꽃의 계절인 시브월(왕상 6:1), 비의 계절인 7월과 8월 즉 에다님 월(왕상 8:2)과 불 월(왕상 6:38) 등을 가

리킨다. 이와 같이 달(moon)의 반복적 운행과 관련된 절기에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렸다(참조, 사 1:14).

- (3) 절기(헬, 카이루스) :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레 23:4; 대하 8:13; 요 7:2)의 삼대 절기를 비롯하여 무교절(출 12:15-20; 레 23:5), 나팔절(레 23:24), 수전절(마카비상 4:52-59), 부림절(에 9:24-32) 등을 말한다.
- (4) 해(헬, 에니아우투스) : 매 7년마다 지키는 안식년(출 23:11; 레 25:2-7, 20-22)과 매 50년 맞이하는 회년(禧年, 레 25:8-55; 27:17-24)을 가리킨다.
- (5) 유대인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절기들을 '삼가 지켰다'.
- (6) 여기서 '삼가 지키다'로 번역된 헬라어(파라테레이스테)는 '매우 엄격히 그리고 열심히 지키다'는 의미이다(공동 번역, '승상하다').
- (7)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에 입각하여 그러한 종교적 절기들을 열심히 지켰지만 그것은 헛될 뿐이었다.
- (8) 율법은 본래 선한 것이지만(롬 7:12) 그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왜곡될 때는 인간의 속박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참조, 롬 3:19; 8:3; 히 7:19).
- (9) 오늘날 우리들은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교회력의 절기들을 지키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 행사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참조, 사 1:10-17).

14. **㉠**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인가? (11절)

- ㉠** (1)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에 치우쳐 완고한 유대인들과 같이 절기들을 지키는데 열심이었기 때문이다(9, 10절).
- (2) 즉 그들은 그들 내부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2:4)의 가르침에 따라 믿음 위에 율법의 수행을 첨가시켰다(1:6, 7).
- (3) 그런데 그들은 그 같은 처사를 불신앙적이라기 보다는 합리적이며 종합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 (4) 그러나 이것은 참된 믿음 없이 외적인 경건을 꾸미는 형식적이며 바리새적인 태도로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참조, 제 3:14-17).
- (5) 결국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열매를 맺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참조, 벧후 1:5-9).
- (6) 오늘날 성도들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궤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기초를 굳게 하여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엡 4:13-16).

15. **㉠**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은 무슨 뜻인가? (12절)

- ㉠** (1) 바울 자신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를 버리고 이방인과 같이 된 사실을 뜻한다.
- (2) 실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2:8; 행 9:15) 그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을 수용할 이방인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였고, 또 그들과 같은 상태에 자신을 두었다(고후 6:4-10).
- (3) 이와 같이 바울이 하나님의 양을 찾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위(참조, 행 23:6; 26:10)와 유대인(롬 11:1; 빌 3:5)으로서의 우월감을 헌신짝같이 내버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었고 그의 목회 생활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참조, 고전 9:20-22).
- (4) 이러한 목회 생활이야말로 오늘날 모든 교역자들이 본받아야 할 귀감이다(참조, 마 20:26; 행 20:24; 벧전 5:2).

16. **㉠** 갈라디아 교인들을 권유하는 바울은 그들에 대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12절)

- Ⓐ (1)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고 권유하였다.
 (2)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고전 11:1 말씀과 같은 의미이다.
 (3) 바울은 복음에서 떠나 율법에 치우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와 같이 권유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자기에 대해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다.
 (4) 바울의 이러한 증언은 그가 전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했던 것(참조, 행 13:50; 14:19)과 달리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를 우호적으로 대해 준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다.
 (5) 이와 같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권유하고 때로는 책망함과 동시에 그들의 장점을 인정한 것은 그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저들을 욕하거나 오해하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6)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을 책망할 때 그의 장점을 잊기 쉽다. 특히 목회자는 이런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참조, 딤후 6:11; 딤후 7:24).

17. Ⓢ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당시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가? (13-15절)

- Ⓐ (1)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들은 바울에게 '육체의 약함' (13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오직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14절) 여기며 복음을 받아들였다.
 (2) 여기서 '육체의 약함'은 고후 12:7의 '육체의 가시'와 같은 말로서 바울이 육적인 어떤 병을 가졌다는 사실을 나타낸다(참조, 고전 2:3). 이 병은 두통(Jerome)이나 간질(Lightfoot), 또는 말라리아(Ramsay)로 보기도 하며 혹은 15절의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는 표현으로 보아 안질(眼疾)로 보기도 한다(참조, 6:11; 행 9:9, 18).
 (3) 어쨌든 바울은 당시 어떤 종류의 좋지 못한 질병에 걸려 있었다. 이러한 사실이 복음 전파에 하나의 커다란 거침들이 되었을 것임은 자명하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멸시하지 않고 그를 존경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약점을 덮어 주며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참조, 요 13:34).
 (5)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그 개인적 외모라든가 지식의 정도 등을 근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그 가르침은 어느 특정 교파의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간에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참조, 벧전 1:22).

18. Ⓢ 바울은 복음에서 이탈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16-20절)

- Ⓐ (1)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 복음을 열렬하게 받아들였지만 얼마 못 가서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받아 율법주의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9, 10절; 1:6).
 (2) 이것은 사실상 바울을 배척하는 것과 같았으므로 바울의 괴로움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웠다.
 (3) 그리하여 바울은 지금까지 갈라디아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를 교리적으로 다루어 왔으며 그들을 호칭하는 데 있어서 다소 냉정한 태도를 취하기까지 했다. 가장 친밀한 태도를 취했던 경우라야 그들을 '형제들'(12절; 1; 11; 3:15)이라고 부를 때를 들 수 있는데, 그것은 실상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일반적인 호칭에 불과했다.
 (4) 그러나 이제 철저한 신학적 논쟁 뒤에 감추어져 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목회자적인 관심과 사랑이 표면에 나타나고 있다.
 (5) 바울은 여기서 그들을 '나의 자녀들' (19절)이라고 부른 것이다. 이 표현은 바울 서신에서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다.
 (6) 이와 같이 배은 망덕한 행위에 대해 관용을 베풀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태도를 취한 바

울 사도의 모습은 모든 목회자들이 따라야 할 모본이다(참조, 사 40:11; 행 20:28).

19. ㉠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므로 원수가 되었느냐'는 무슨 의미인가? (16절)

- ㉠ (1)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바로 전한 것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그를 배척하게 한 결과가 되었다는 뜻이다.
- (2)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처럼 바울을 버릴 정도까지 이르른 근본적인 원인은 바울에게 있지 않고 다만 그들이 유대교 출신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수용한 데 있었다(참조, 1:7; 2:4).
- (3) 이와 같이 때때로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구원의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적의를 사는 경우가 있다(참조, 행 7:54, 57).
- (4) 이런 경우에 사역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불쾌하게 생각할 것을 염려하여 진리를 말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참조, 행 7:55, 56).

20. ㉠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17절)

- ㉠ (1) 거짓 교사들은(2:4)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 좋은 뜻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 그들은 신실하지도 정직하지도 않다.
- (2) 또한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 사도 사이를 이간 붙여 심금을 받으려고 꾀했다.
- (3) 결국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유익보다 자기의 이익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진 가식자들이요 음모군이였다(참조, 고후 11:13-15).
- (4)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저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임을 역설하였다.
- (5) 진실과 성실함을 없으면서 열심을 내는 자들이 있다. 저들은 선량한 성도들을 교사(敎唆)하여 자기 자신이 선망의 대상이 되려고 획책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상투적인 유혹 방법을 경계해야 한다(살전 5:6; 계 3:11).

21. ㉠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18절)

- ㉠ (1) 여기서 열심으로 사모하는 주체는 율법주의자들이며 그 사모함을 받는 대상은 갈라디아 교인들이다(참조, 공동 번역).
- (2)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둘 때 본질을 의역하면 '나는 내가 너희를 사모함같이 율법주의자들이 너희에 대해 열심을 내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항상 선한 동기로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가 된다.
- (3) 한편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은 바울을 지극히 사랑하였고(14, 15절), 바울 사도도 그들을 사랑하였다.
- (4) 그러나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 바울과 복음에서 떠나 있었다(9, 10절).
- (5)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참복음을 위해서라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을 버리고 유대인 교사들을 좇아도 좋다고 밝히고 있다.
- (6)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과 훌륭한 인격을 느낄 수 있다(참조, 엡 3:1-8).
- (7)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좋은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바울의 자세를 본받아야 한다(행 20:24; 딤후 4:7).

22. ㉠ 사도 바울은 복음에서 떠난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하겠다고 말하고 있는가? (19절)

- ㉠ (1)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까지 출산의 고통

을 겪은 어머니같이 수고하였다.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9, 10절)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또다시 그와 같은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

- (2) 여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마음속에 심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영적 합일(合一)을 가리킨다(참조, 2:20). 다시 말해 이것은 날마다 육체의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박음으로써 세상 죄로부터 분리되는 생활을 함을 뜻한다(5:24).
- (3)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생활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에서 이탈하여 율법주의에 미혹되었다(참조, 1:6).
- (4)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그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신앙에 전보다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힌 것은 참목자의 자세이다(참조, 창 31:38-40; 눅 15:3-6).
- (5)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자세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배우게 된다. 첫째,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에 대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같이 지속적이며 헌신적인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다(참조, 요 10:11). 둘째,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음으로써 확고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일에 주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참조, 딤후 4:5). 그러므로 목회자는 먼저 성도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하며 더군다나 그들을 자기의 이용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참조, 17절; 뱀전 5:2, 3).

23. ㉠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는 무엇을 뜻하는가? (20절)

- ㉠ (1) 본절에 ‘의심이 있음이라’로 번역된 헬라어 <아포루마이>는 ‘어찌할 바를 모르다’, ‘당혹해 하다’를 뜻한다(RSV, NIV, am perplexed about).
- (2) 이러한 문맥을 염두에 둘 때 본절은 바울 자신이 지금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당혹해 하며 그들을 책망하는 엄한 태도로 말하였으나 이제 그들을 방문할 수 있다면 부드럽고 온유한 태도로 말하겠다는 의미이다(참조, 공동 번역).
- (3)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당시 복음에서 떠나 거짓 교사들의 교훈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음을 소식으로 들었을 뿐 실제 보지 못했으므로 그들에 대해 일말의 두려움과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심정 때문에 그는 본서신을 쓰게 되었으나 실제 그들이 자기가 두려워했던 것보다 건전한 상태에 있음으로 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대신 칭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
- (4)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에 대한 목회자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 (5) 이와 같이 잘못을 범한 성도들을 즉시 정죄하기 보다는 그들이 깊이 타락하지 않고 바로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기다리는 마음은 모든 목회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이다(참조, 마 18:12; 뱀전 2:25).

24. ㉠ 21-31절에 나오는 비유의 요지(要旨) 및 그 성격을 말하라.

- ㉠ (1) 21-31절의 비유는 율법과 은혜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 (2) 즉 이 비유는 바울의 주요 논점 곧 율법 원리와 믿음 원리의 근본적 대립 및 율법 아래서의 삶은 속박의 삶이며, 믿음 안에서의 삶은 자유의 삶이라는 사실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삶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의 결과라는 사실을 예시하고 있다.
- (3) 한편 이 비유가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두 아내 하갈과 사라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은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약의 이 기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다(참조, 3:15).
- (4) 즉 그들은 유대교 출신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아브라

함의 혈통적 후손인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릇되이 생각하였다(참조, 9, 10절).

- (5) 따라서 바울은 이 비유를 소개함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지키며 그 아래 종 노릇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며 도리어 그리스도를 부인(不認) 하는 어리석은 일임을 깨우쳐 주고자 했다.
- (6) 결국 이 비유 기사는 율법에 따라 살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그리스도께 대한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사도 바울의 최종적인 인격적 호소이다.

25. ㉠ 22-26절에 기록된 대조적인 내용을 도표화하여 설명하라.

㉠ (1)

구 분	내 용	
아브라함의 두 아내	하 갈	사 라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자연적 출생)	이삭(초자연적 출생)
신 분	종	자 유 자
두 언약	옛 언약(율법)	새 언약(은혜)
장 소	지상의 예루살렘	천상의 예루살렘
두 종교	유 대 교	기 독 교

- (2) 여기서 하갈에게 난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과 사라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적자(嫡子) 이삭은 각각 하나님의 두 언약, 즉 율법과 은혜(복음)의 비유로 사용되었다(참조, 창16, 21장).
- (3) 이들 중 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과 그 어미 하갈은 본래 종의 신분이었고, 아브라함이 노쇠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출생한 이삭과 그 어미 사라는 자유인이었다(22, 23절).
- (4) 그렇다면 율법과 은혜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다는 도식이 성립된다.
- (5) 이렇게 볼 때 율법은 하갈이 사라의 종이였듯이 은혜(복음)를 위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 (6)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를 저버리고 율법을 추구한 것은 영적인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위이다(9, 10절; 1:6).
- (7)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율법 아래 거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이삭과 같이 바울이 제시한 계시 역사(啓示歷史)를 살펴볼 때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복음의 자유를 잃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벧후 1:5-10).

26. ㉠ ‘하갈’과 ‘우리 어머니’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가? (25, 26절)

- ㉠ (1) ‘하갈’ (개역 성경에는 ‘하가’로 되어 있으나 ‘하갈’이 옳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본문과 모든 영역본들은 한결같이 ‘하갈’로 표기하고 있다)은 아브라함의 첩(妾)이다(창 16:1-3). 그런데 아라비아 말로 ‘시내 산’을 ‘하갈 산’이라고 칭한다(Living Bible, Mount Hager).
- (2) 바울은 이러한 비슷한 발음에 착안하여 ‘하갈’과 ‘시내 산’을 동일시하고 있다(25절).
- (3)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부여받았다(출 19:1-24:18).
- (4)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둘 때 ‘하갈’은 현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예속되어 ‘지금 있는 예루살렘’ 곧 유대인들을 상징함을 알 수 있다(참조, 마 27:21-25; 행 13:42-46; 롬 11:25).

- (5) 한편 '우리 어머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가리킨다(22절; 창 11:29). 그런데 사라라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였다(22, 23절).
- (6) 그러므로 '우리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멍에서 해방되어 참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참조, 창 22:18; 롬 15:9).

27. **㉠** 27절은 사 54:1의 인용이다. 이 말씀의 역사적인 의미 및 바울이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말하라.

- ㉠** (1) 사 54:1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와 황폐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이전보다 더욱 크게 번창하리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다.
- (2) 이제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을 본장의 전후 문맥에 따라 비유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 먼저 '임태치 못한 자'와 '구로(劬勞)치 못한 자' (공동 번역,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인') 그리고 '홀로 사는 자'는 같은 맥락에 있는 말로서 90세까지 자식을 낳지 못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가리킨다(창 17:17). 그 다음 '남편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첩으로서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을 가리킨다(창 16:15).
- (4) 이렇게 볼 때 '홀로 사는 자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민이 된 '그리스인들'이며 '남편 있는 자의 자녀'는 육체를 따라 '지금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가 된 '유대인들'임을 알 수 있다(참조, ㉠ 26).
- (5) 그렇다면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는 표현은 기독교인들의 수효가 유대인들보다 많게 되리라는 의미를 지닌 것이 된다(참조, 롬 11:25).
- (6) 따라서 본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의 어머니 사라(26절)를 통하여 복음을 주시며, 그 복음 안에서 교회가 크게 확장된다는 뜻이다(참조, 롬 14:11; 빌 2:9-11).
- (7) 이상과 같은 계시 역사를 살펴볼 때 교회의 확장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임을 알 수 있다(창 22:18; 사 22:27; 엡 3:6). 그러므로 교회가 활기 없고 초라하며 흥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땅에서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28. **㉠** 사도 바울은 22-26절에 기록된 비유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는가? (28-31절)

- ㉠** (1)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요(28절)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31절)라고 말한다.
- (2)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에 의하여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동시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참조, 롬 4:13, 14).
- (3) 이러한 사실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상기시킨 바울은 이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하였다.
- (4)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형제로부터 핍박받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29절). 이삭이 젓 떼는 날에 그의 이복 형(異腹兄) 이스마엘은 이삭을 조롱하였다. 그 때문에 사라는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을 것을 요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구를 허락하셨다(창 21:8-13).
- (5) 이와 같이 참된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은 예수께서 친히 가르치신 바이며(마 5:10-12), 또한 사도들이 증거한 바이다(빌 1:29; 살전 3:1-4; 벧전 4:12, 13).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러한 핍박이 언제나 세상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사실상 더욱 빈번하게는 이복 형제들, 곧 교회 내에 있는 자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역사가 가르쳐 준다. 선지자들을 살해한 자들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었고, 예수를 적대시하고 그의 처형을 주도한 자들은 바리새인과 기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살전 2:15).

또한 사도들과 바울의 가장 맹렬한 적대자들은 광신적 유대교인들이었다(1:7; 행 9:23, 24; 14:2).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의 최대 적(敵)은 믿음이 없는 교회에 속한 자들 가운데서 발견된다(참조, 살전 2:14).

- (6) 둘째,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만든 종교와 하나님께서 만든 종교의 절대적인 양립 불가능성을 인식하고서 율법주의자들을 추방함으로써 하나님께 응답해야 한다(30절). 육체를 따라 난 자들(29절)은 성령을 따라 난 아들들과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것이다.
- (7) 오늘날 교회 내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과 같이(2:4)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을 강조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참조, 마7:21-23). 더 나아가 자기 교파가 정통이므로 자기를 따라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선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행동이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멀리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책망해야 할 것이다(엡 5:11; 살후 3:6).

연구자료

성경에 사용된 아람어(Aramaic). 근동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메소포타미아 서북 지방에서 쓰던 셈어(Semitic)인 아람어 ② 동방계 셈어인 아카드어 ③ 남방계 셈어인 구스어와 아람어 ④ 메소포타미아 서북 지방에서 쓰던 가나안어(이에는 히브리어, 페니키아어, 우가릿어가 속함). 이 중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같은데 반해 어휘 및 문법에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아람어는 페르시아 제국 치세하에 국제어로 채택되었으며 그 결과 이집트 및 인도에까지 전파되었다. 따라서 아람어는 근동 문명의 한 본질적 요소로 위치하게 되었는데 헬라인과 로마인들도 근동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람어를 숙지하여야 했다. 이 같은 상황은 자연스럽게 신·구약 성경의 기록에 있어서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그 직접적인 흔적은 신·구약 성경에 아람어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람어 단어 및 문장은 창31:47의 '여갈사하두다'(중거의 무더기), 렘10:11 그리고 스4-7장의 대부분 및 단2-7장이 있다. 한편 유대인들이 신약 시대에 사용했던 아람어는 통상적으로 '히브리어'로 불리우던 팔레스틴의 아람어 방언인데 그중 직접적으로 신약 성경에 사용된 것들로만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본장 6절 및 막14:36; 롬8:15에 나오는 '아바'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달리다굼'(막5:41)과 '에바다'(막7:34)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마27:46) 등도 아람어이다. 또한 제22:20에 나오는 '마라나다'(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역시 아람어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아람어가 성경에 끼친 영향은 쉽사리 간과할 수 없는데 A. D. 3세기 이후에는 탈무드에도 아람어가 사용될 정도였다.

제 5 장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생활

단락구분 1-2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굳게 지키라 / 3-12 할례의 범을 좇지 말라 / 13-15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 16-18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 / 19-23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 24-26 성령으로 사는 생활

1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2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3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4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5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7 너희가 달음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8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9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10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11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12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13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14 은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15 만일 서로 돕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9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과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21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은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25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1. ㉠ 본장의 개요를 말하라.

㉠ (1) 본장에서 바울은 3,4장에서 다룬 교리적인 내용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의 현실 상황에 적용시키고 있다.

(2) 그는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통한 참자유를 굳게 지키라고 교훈한다(1절).

(3) 그 다음 그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2:4)의 허탄한 가르침을 경계할 것(2-18절)과 아울러 육체의 일(19-20절)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22-26절)를 맺을 것을 강조한다.

(4) 바울이 이와 같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건 생활의 실천을 권고한 것은 경건의 훈련이 야말로 거짓 교사들의 함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참조, 딤편4:7, 8).

2.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1절)**

- ㉠** (1) 그 목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다.
 (2) 이 자유는 도덕적, 관념적인 자유가 아니라 율법과 죄의 멍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이다(참조, 마11:28-30; 요8:34-36).
 (3) 그런데 이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요 결코 인간의 자선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종의 멍을 메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참자유를 주신 것이다(롬7:1-4).
 (4) 그러므로 자유는 방종(放從)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다(참조, 요8:36).
 (5)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율법주의나 관념주의 혹은 도덕주의에 예속되어 참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참자유를 누리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2:20).

3. **㉠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선동한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오직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되며,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받으라고 강요하였다(참조, 2:3).
 (2) 특별히 이 할례의 시행 여부는 초대 교회의 커다란 쟁점이 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유대주의를 버리지 못한 자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내걸은 문제였다(참조, 행15:1-11).
 (3) 그러나 어디까지나 할례 시행을 고집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할례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목적이 성취되고 끝이 났기 때문이다(롬10:4).
 (4)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고 권면하고 있다.
 (5) 다시 말해 만약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의(義)를 얻으려고 할례를 받는다면, 저들의 삶 중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참조, 2:21).
 (6) 이와 같이 구원의 조건으로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무엇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자들의 그릇된 신앙관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완전한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참조, 요16:9; 행7:54, 57).

4. **㉠ 할례를 받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 (1) 그 이유는 할례를 택하는 것은 율법주의를 택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2) 이와 관련하여 당시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교에 입교하는 자는 율법의 일부만 지키는 반면에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한다는 유대교의 관습이 있다(참조, 행15:1).
 (3) 한편 유대인들은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참조, 눅12:1). 그들이 율법 전체를 지켜 행하기에는 불가능했던 것이다(롬7:23-25).
 (4) 만일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서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교만이다. 자신이 무력하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

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율법주의의 울무에 빠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아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다(롬7:4-6).

5. **㉠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는가? (4절)**

㉠ (1)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2)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죄를 지으면 은혜에서 떨어져 구원을 상실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3) 오히려 이 귀절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는 은혜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4) 성도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행위는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율법의 명예를 메는 행위임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2:16).

6. **㉠ 성도들이 기다려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 (5절)**

㉠ (1) 그것은 '의(義)의 소망' (헬, 엘피다 디카이오수네스)이다.

(2) 여기서 '의의 소망'이란 의로워지기를 바라는 소망으로서 우리를 자신의 의(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한 것이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며 이 의는 장차 올 세계에서 완성된다(참조, 딤후4:7, 8).

(3) 이러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는 '성령'이다(참조, 벰전1:11, 12).

(4) 따라서 성도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에 대한 지식을 풍성하게 한 후, 율법의 행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과 의의 소망을 굳게 해야 한다(엡4:13-15).

7. **㉠ 바울은 할례와 관련하여 믿음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6절)**

㉠ (1) 바울은 할례냐 무할례냐 하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2) 이러한 사실은 그의 주요한 관심이 의식(儀式)상의 문제에 있지 아니함을 보여 준다(참조, 고전8:8).

(3) 그렇다면 바울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그리하여 바울은 본질에서 참된 믿음이란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임을 강조하게 된다.

(4) 여기서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은 엡6:23의 '믿음을 겸한 사랑'과 같은 의미를 지닌 말로서 믿음은 사랑의 행위를 동반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참조, 약2:14-17).

(5) 참으로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엡2:8). 그러나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올바르게 믿기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식의 단순한 지적(知的) 신념이 아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 확신을 두는 것이다(참조, 롬5:8).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한 사랑을 받았으므로 타인을 위해서 순수하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살전3:12; 요일3:16).

8. **㉠ 바울은 복음에서 떠난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태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 (7절)**

㉠ (1)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할 때 그리스·로마 사회에서 성행되던 운동 경기에서 벌어 온 표현을 즐겨 사용했다. 인생이란 달음질 경기와 같다고 생각한 바울은 그 자신을 빈번하게 달음질 선수로 비유하였다(2:2; 고전9:24-27; 빌3:13, 14; 딤후4:7). 이제 바울은 이러한 비유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다.

- (2) 바울이 증언했듯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당시에는 ‘달음질을 잘 하였다’. 즉 당시 그들의 삶은 어떤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적 긍정 곧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성품으로부터 괴리(乖離)된 단순한 정교주의(orthodoxy)가 아니었다. 또한 그들의 삶은 교리가 결여된 기독교의 삶만도 아니었다. 그들의 삶이야말로 ‘진리를 순종하는’ 삶 그 자체였던 것이다.
- (3) 그러나 이와 같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분명 무엇인가 잘못이 생겼다. 율법주의를 고수하는 거짓 교사들(2:4)이 그들을 가로막은 것이다. 여기서 본절에 ‘막아’로 번역된 헬라어 <엔콤포>는 군사 용어로서 본래 가로막을 목적으로 장애물을 세우거나 길을 파괴하는 것은 가리킨다(KJV, RSV, hindered).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달음질로 비유하고 있는 본절에서 이 단어는 다른 주자(走者) 앞으로 뛰어들어 진로를 방해하는 경주자의 불법적 간섭 행위를 가리킨다.
- (4) 이상에서 언급한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신앙 생활의 출발을 잘하여 한동안 잘 달리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혀 계속 뛰지 못하거나 길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에 처한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하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일임을 명심하고 자신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엡5:15; 벧전5:8).

9. **㉠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어진 거짓 가르침의 기원과 영향 및 그 종말에 대해 말하라 (8-10절).**

- ㉠ (1)** 첫째로, 바울은 거짓 가르침의 기원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에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너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을 가리키며 ‘적은 누룩’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든가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1:7; 2:4)을 가리킨다.
- (2) 둘째로, 사도 바울은 거짓 가르침이란 누룩처럼 접촉하는 모든 것을 감염시키고 그속에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9절; 고전5:6). 이 말은 교회는 어떤 한 가지의 잘못된 원리에 오염되어 부패될 수 있음을 뜻한다. 즉 그릇된 교리를 전하는 자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 오염이 더욱 퍼져 교회는 커다란 미혹에 빠질 것이다(참조, 딤후4:1).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위협스러운 존재들을 결코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자들은 마땅히 성도들로부터 분리시켜야 할 것이다(참조, 벧후3:17).
- (3) 셋째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올바른 마음으로 돌아올 것을 확신하면서 그들을 요동케 한 거짓 교사들은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한다(10절).
- (4) 하나님의 진리를 제 마음대로 해석하여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혈안(血眼)이 되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배격하는 교만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잠21:4; 계12:9).

10. **㉠ 바울이 할례를 전하면 ‘십자가의 거치는 것’이 그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11절)**

- ㉠ (1)** 여기서 ‘할례를 전한다’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임을 인정하고 주장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그리고 ‘거치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칸달론>은 ‘덧’이라든가 ‘올가미’ (롬 11:9) 또는 ‘시험’ (마 18:7; 눅 17:1; 롬 16:17)을 의미한다. 본절에서 이 말은 마음에 크게 거슬려서 격렬한 반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2) 이렇게 볼 때 본절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할례 시행과 같은 율법의 행함을 구원의 요건으로 주장한다면 그때 유대인들은 바울을 핍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거치

지도 아니한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 (3) 여기서 십자가는 '십자가의 도' (고전 1:18)를 말하는 것으로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 (RSV, the stumbling block)이 되었다(고전 1:23).
- (4) 오늘날에도 율법을 고집하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철저한 합리주의자, 과학주의자, 자연주의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진리가 거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미련한 것'(고전 1:18)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고전 2:14).

11. ㉠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어 버리기를 원하노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2절)

- ㉠ (1) 본절은 갈라디아 교회 내에 들어와 선동하는 거짓 교사들(2:4)이 규례에 대한 열심으로 인한 할례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세(去勢)하도록 내버려둔다는 뜻이다.
- (2) 즉 이 말은 할례를 주장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을 선동하는 자들은 아예 그 지체를 잘라 버려 거세자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미이다(공동 번역).
- (3) 이러한 표현은 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었던 아티스 시벨레(Attis-Cybele) 숭배 의식에 서처럼 이교 제사장들에 의해 빈번히 행해졌던 거세의 관습을 염두에 둔 것이다.
- (4) 바울이 이와 같이 유대인의 할례 의식을 혐오스러운 이교도들의 풍습과 동일한 수준에 놓은 사실은 그가 악의를 품거나 성질이 고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다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이방인을 할례받도록 하려는 율법주의자들의 노력에 의해 방해받지 않기를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4:11; 고후 11:3).
- (5) 이와 같이 진리를 부패케 하고 복음의 자유를 포기하기 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걸며, 다른 사람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도 포기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은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귀한 모본이다(참조, 행 20:24).

12. ㉠ 율법의 참된 정신은 무엇인가? (13-15절)

- ㉠ (1) 율법의 참된 정신은 사랑이다(14절; 롬 13:10).
- (2) 그러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정신인 사랑은 무시하고, 형식적인 율법 조문에만 집착했다.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에는 항상 분쟁이 뒤따르게 마련이다(참조, 고전 1:10-12; 3:1-4).
- (3) 당시 갈라디아 교회 내부에도 할례와 같은 율법의 시행을 강력히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2:4)의 선동으로 인해 분쟁이 생기게 분명하다(참조, 26절).
- (4) 바울은 이러한 분쟁과 관련하여 짐승과 같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1절)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고 권면하고 있다(13절).
- (5)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율법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들은 그 자유를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타인을 위해 사랑의 봉사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 (6)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참자유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참조, 벧전 2:16).

13. ㉠ 성령과 육체의 욕심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16, 17절)

- ㉠ (1) 육체(헬, 사르크스)의 소욕(所欲)은 '죄 짓는 본성'을 말한다(NIV, the sinful nature) 그리고 성령(헬, 프뉴마)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고(고전 2:14)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4:6; 롬 8:15)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영'이다(롬 8:9).

- (2) 이제 성령과 육체의 소유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육체의 소유는 성령을 거스린다'. 이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마15:19;엡2:3). 둘째, '성령의 소유는 육체를 거스린다'. 이 말은 성령이 신자로 하여금 자기 욕심대로 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다.
- (3)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과 성령은 서로 대립 관계에 있다. 이러한 관계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육과 영의 투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참조, 롬7:15-24).
- (4) 한편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 투쟁에 있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16절).
- (5)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절제할 수 있다(참조, 오16:8-11). 그러나 죄는 결코 진멸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언제나 의식적인 선택에 의해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시73:28;히10:22).

14. **㉠** 바울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18절)

- ㉠** (1) '율법 아래 있다'는 표현은 인간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자기 의(義)를 이루려고 추구하는 바, 율법의 종이 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참조, 막2:24;요5:10;행15:5;롬10:2,3).
- (2) 바울 사도는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 (3)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는 말은 성령의 지시에 순종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참조, 롬6:16).
- (4) 이와 같이 성령에 따르는 삶은 율법주의도 방종도 아니며,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삶이다. 성도들은 이러한 삶만이 자신의 정욕과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벧전1:14,15).

15. **㉠** 바울이 제시한 '육체의 일'은 무엇인가? (19-21절)

- ㉠** (1) '육체의 일'은 성령을 좇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일에 탐닉하는 자는 사단의 종과 다를 바 없으며, 참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롬8:6,7).
- (2)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육체의 일을 다양하게 열거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하여 생각할 수 있다.
- (3) 첫째는 제 7계명을 거스리는 죄들이다. 이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好色)으로 성도덕에 위배되는 죄들이다(참조, 고후12:21).
 - ① 음행(헬, 포르네이아) : '매음(賈淫) 또는 '매춘부'를 뜻하는 말에서 유래하였으며, 모든 부도덕한 관계를 가리킨다.
 - ② 더러움(헬, 아카다르시아) : 본래 불결한 상태를 의미했으나 후에 도덕적 의미로 전화(轉化)되어 도덕적으로나 예법상으로 부정한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다.
 - ③ 호색(헬, 아펠레이아) : '정숙의 미덕에 대한 공공연하고 파렴치한 경멸'을 뜻한다(Lightfoot).
- (4) 둘째는 제 2계명을 거스리는 죄들이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술수(術數)로서 종교적 영역과 관련된 죄들이다.
 - ① 우상 숭배(헬, 에이돌로라트리아) :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을 가리킨다(참조, 고전10:14;골3:5).
 - ② 술수(헬, 파르마케이아) : 악의 권능과 은밀히 결탁하는 것을 뜻하며, 때로는 악에 대한 숭배를 가리키기도 한다(참조, 제18:23;21:8).
- (5) 세째는 이웃에 대한 죄들이다. 이에겐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리함, 이단(異端), 투기 등이 해당되는데, 이것들은 모두 상대편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할 때 생기는 것으로서 인간 상호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사회적인 죄악들이다 (참조, 고후 12:20).

- ① 원수를 맺는 것(헬, 엑드라이) : 계급이라든가 민족 또는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증오’를 의미하며, ‘사랑’(헬, 아가페)의 반의어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증오가 존재치 않는다(3:28; 엡 2:13).
 - ② 분쟁(헬, 에리스) : 퇴폐적인 싸움을 가리킨다. 이것은 세속에 있어서나 교회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증오의 자연적 산물(産物)이다.
 - ③ 시기(헬, 켈로스) : 시기는 ‘경건한 열망’과 ‘미워하는 마음의 상태’로 구분된다. 전자(前者)는 선의(善意)이나, 후자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악이다(참조, 잠 14:30; 전 4:4).
 - ④ 분냄(헬, 뒤모이) : 마음속의 노여운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가리킨다(참조, 삼상 20:34; 느 5:6, 7). 그러나 이기적인 욕망에서 나온 분노는 악할 뿐이다(참조, 삼상 17:28; 눅 15:28).
 - ⑤ 당 짓는 것(헬, 에리테이아이) : ‘논쟁’(Jerusalem Bible, quarrels)이라든가 ‘싸움’(KJV, strife), ‘이기심’(공동 번역, RSV, NIV, selfishness)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그 기본적 의미는 이기적이며 자기 과시적인 행동 방식을 가리킨다.
 - ⑥ 분리함(헬, 디코스타시아이) : 서로 갈라서서 불화가 만연한 상태를 가리킨다(참조, 롬 16:17; 살후 3:6).
 - ⑦ 이단(헬, 하이레세이스) : 원래 ‘당파’(NIV, Jerusalem Bible, factions)의 뜻이었으나(참조, 행 5:17; 24:5; 26:5) 여기서 발전하여 ‘이단 분파’(KJV, heresies)를 의미하게 되었다(참조, 고전 11:9).
 - ⑧ 투기(헬, 프도노이) : ‘시기’(헬, 켈로스)와 유사하나 이보다 더욱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 즉 <프도노이>는 남의 것을 탐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탈취하려고까지 마음 먹는 악심(惡心)을 뜻한다(참조, 딤후 6:4; 벰전 2:1).
- (6) 네째는 술과 관련된 죄로서 술취함과 방탕함이다. 이 죄목들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적인 쾌락에 탐닉하게 하며, 그 결과 범죄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게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전 5:11; 벰전 4:3).
- ① 술취함(헬, 메다이) : 성경은 술에 취하는 것을 금(禁)하고 있다(잠 23:31; 고전 6:9, 10; 엡 5:18). 술에 취하면 자연히 방탕해질 것이니(사 22:13; 롬 13:13)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사 28:7; 마 24:48-51).
 - ② 방탕함(헬, 코모이) : 원래 ‘술에 취하여 흥청망청 떠드는 것’을 의미한다(공동 번역, KJV, revellings). 이러한 육욕(肉慾)에 빠진 사람은 향락주의로 치달게 되어 마침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암 6:4-7; 눅 21:34).
- (7) 바울은 이상과 같이 ‘육체의 일’을 나열하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엄숙하게 경고하고 있다(21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헬, 바실레이아 데우)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는 용어로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한다(롬 14:17; 고전 4:20; 6:9; 15:24, 50; 살후 1:5).
- (8) 이렇게 볼 때 육체의 일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죄됨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고전 6:11)을 사모해야 할 것이다.

16. Q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22, 23절)

- Ⓐ (1) '육체의 일' (19-21절)은 인간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나, 반면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당신의 자녀 사이의 생동(生動)하는 관계에 의해서 맺어지는 성령의 산물이다(참조, 2:20; 요15:1-17).
- (2) 특히 '열매'로 번역된 헬라어 <카르포스>가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러한 특성들이 낱개의 열매들이 아니라 포도송이처럼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과 아울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찾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 (3) 이제 바울 사도가 열거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다음과 같다.
- ① 사랑(헬, 아가페) : 기독교의 여러 덕목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이다(고전13:13).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요일4:8)이시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에로스'(Eros) 사랑과 달리 헌신적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킨다(롬5:8).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 죽게 하시고, 인간이 어리석고 죄를 사랑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참고 받아들여 이시는 것은 바로 이 사랑 때문이다(엡2:4-8). 이러한 사랑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세상에 대해 사랑을 보여 주어야 한다(레19:18; 요13:34, 35).
 - ② 회락(헬, 카라) :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기쁨을 가리키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세속적인 행복에 해당되는 덕목이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은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인사말로 사용되고 있다(참조, 마28:9; 눅1:28; 행15:23; 고후13:11; 약1:1).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롬14:17; 빌4:4; 살전5:16).
 - ③ 화평(헬, 에이레네) : 히브리어 <샬롬>과 같은 뜻이나 실제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즉 화평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간이 얻은 하나님의 은사이다(고후5:18-21).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평화이다(롬5:1; 빌4:6, 7). 성도들은 이 화평을 가정에서(고전7:12-16), 교회에서(엡4:3; 골3:15) 그리고 모든 대인 관계에서 나타내야 한다(히12:14; 벧전3:11).
 - ④ 오래 참음(헬, 마크로뒤키아) : 혹독한 시련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 관용할 줄 아는 자질이다.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성품이다(롬15:5; 벧후3:9, 12).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며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신다(마10:22; 눅21:19).
 - ⑤ 자비(헬, 크레스토테스) : 하나님의 자비를 말한다(눅6:35; 딤후3:4-7). 하나님은 인간을 그 자비로써 대하신다(참조, 느9:17; 사54:8; 욥2:13).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 행하시는 바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여 주어야 한다(눅6:36; 고후6:6).
 - ⑥ 양선(헬, 아가도쉬네) : 이는 '자비'보다 더 능동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선행'(공동 번역; KJV, RSV, goodness)을 뜻한다(롬15:14; 엡5:9).
 - ⑦ 충성(헬, 피스티스) : 이 말은 '믿음'(KJV, faith)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인간이 되게 하는 자질 곧 '진실성'(공동 번역) 혹은 '성실성'을 가리킨다(RSV, NIV, faithfulness). 이러한 특성은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계1:5)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 언제나 미쁘시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고전1:9; 10:13; 살전5:24; 살후3:3)의 성품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 된 사람들의 성품이다(딤후1:12; 딤후2:2).
 - ⑧ 은유(헬, 프라우테스) : 당시 동시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은유하다고 칭찬받았던 모세와 같이(민12:3), 외적으로 부드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예수그

리스도의 성품으로(마11:29) 우리가 배울 때나(약1:21) 규율을 세워 잘못을 바로 잡을 때 반드시 지녀야 할 자세이다(6:1). 또한 이것은 반대자를 대할 때나(딤후2:25) 그리스도를 간증할 때도 지켜야 할 덕목이다(벧전3:15, 16).

⑨ 절제(헬, 앵크라테이아) : 육체의 욕심을 이겨 낼 수 있는 자질이다(참조, 잠16:32; 25:28; 고전9:27). 성도들은 말(약3:2)과 음식(잠23:1-3; 단1:11-16)과 음욕(고전7:1-9) 등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고전9:25-27).

(4) 이상에서 언급된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창되고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삶의 특징들이다.

(5) 끝으로 바울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다(23절). 이 말은 성령의 열매처럼 선한 덕목들을 금지하거나 죄악시할 율법이 없다는 뜻이다.

(6) 참된 그리스도의 종들은 옛 사람의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롬7:4).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행위의 열매’ (잠1:31; 미7:13)를 맺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참조, 요15:16).

17. ㉠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24-26절)

㉠ (1) 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은 사람들이다(24절).

(2)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옛 본성을 십자가에 처형할 정도로 자신의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철저히 회개한다(참조, 행9:1-20).

(3) 또한 이렇게 회개하여 구원받은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참자유의 삶을 나타낸다(25절).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인 것이다(마3:8).

(4) 그러나 오늘날 교회 내에 ‘헛된 영광’ (헬, 케노독소스), 즉 명예욕 때문에 서로 시기하며 다투는 사례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코 회개에 합당한 열매(참조, 고전3:3)를 맺는 모습이라 할 수 없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겸손히 교회를 섬기는 법이다(참조, 행20:35; 벧전4:10).

본장의 요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2, 23절).



제 6 장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권면

단락구분 1-5 성도의 짐을 서로 지라 / 6-10 서로 도우라 / 11-13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경계하라 / 14-18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바울

- 1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 2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 3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 4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 5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 6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 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흔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 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 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 10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

- 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 11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 12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 13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 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 15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 16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 17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 18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1. ㉠ 본장의 개요를 말하라.

- ㉠ (1) 바울은 전장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 (2) 이제 본장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으로 사는 삶을 구체적인 현실의 상황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낼 것을 권면하고 있다.
- (3) 즉 서로 짐을 지며 돕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고(1-10절),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라고 말한다(14-18절).
- (4) 바울은 이렇게 권면함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12, 13절)의 미혹에서 벗어나 복음의 진리와 자유를 되찾기를 간절히 원했다.

2. ㉠ 바울은 죄에 빠진 성도가 있다면 그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는가? (1절)

- ㉠ (1) 본절의 '범죄'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랍토마>는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라, 실수로 범한 과오를 가리킨다(KJV, fault).

- (2) 바울은 이러한 과오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바로잡아’로 번역된 헬라어 <카타르티조>는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일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의술 용어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잘못을 못 본 체하거나 공개적으로 폭로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잘못을 바로잡아 주려고 힘쓴다(눅 17:3; 엡 5:11).
- (3) 그런데 바울은 바로잡는 일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숙한 신앙인에 의하여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사실은 ‘바로잡는다’라는 동사의 주어 ‘신령한 너희’에 해당하는 헬라어 <호이 프뉴마티코이>가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사는 사람’(공동 번역)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 (4) 또한 바울은 그 바로잡음이 ‘은유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아무리 성숙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과오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덧붙여 말하고 있다.
- (5) 만일 타인의 잘못을 보고 그를 비난하며 자신은 그에 비해 의롭다고 자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이다(3절; 참조, 요 8:3). 성도들은 형제가 범죄하였을 때에 경솔하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가혹하게 다루지 말고, 오히려 그를 의(義)의 길로 인도하는 데 협력하며 자신을 돌아보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참조, 살전 5:11, 14).

3. **㉠**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2절)

- ㉠** (1) 본절에 ‘짐’으로 번역된 헬라어 <바레>는 다른 사람과 나누어 질 필요가 있는 과중한 짐을 뜻한다(비교, 5절).
- (2) 그렇다면 ‘서로 짐을 진다’는 말은 다른 그리스도인이 시험의 억압을 받거나 인생에서 좌절을 겪을 때 그를 돕는 것을 가리킨다.
- (3) 이와 같이 서로 돕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법’ 곧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새 계명(요 13:34)을 실천한 것과 같다.
- (4) 사람들은 모두 때때로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시험과 괴로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 때에 동정하고 위로하며 도와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 특별히 은혜 아래 사는 성도들은 그와 같은 사랑과 봉사의 행위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5:13).

4. **㉠** 성도들은 자기 성찰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4절)

- ㉠** (1) 본절의 ‘살피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도키마제테>는 제련소에서 순금을 정련(精鍊)하는 것처럼(벧전 1:7)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것을 의미한다(RSV, NIV, test).
- (2) 이 말은 성도들이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살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하여 엄정하게 해야 함을 나타낸다.
- (3) 이렇게 할 때 참된 성도들은 ‘사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음’ 알 수 있다.
- (4) 즉 신실한 성도들은 자기 양심이 그리스도 앞에서 깨끗하고 또 그리스도에게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참조, 고후 12:9, 10).
- (5) 이와 같은 모습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세(3절)와 완전히 다르다.
- (6)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살피려 하지 않고 단지 다른 사람들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하여 평가하고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에서 비롯되는 기쁨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음으로 얻는 기쁨에 비할 때 매우 보잘것없는 것이다(사 61:10; 벧전 1:8, 9).

5. **㉠**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5절)

- ㉠** (1) 2절에 나오는 ‘짐’은 헬라어로 <바레>로서 한 사람만으로는 운반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가리키나, 본절의 ‘짐’에 해당하는 헬라어 <포티온>은 한 사람의 ‘짐 꾸러미’를 의미한다.

- (2) 이렇게 볼 때 ‘짐 꾸러미’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직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참조, 고전 12:5; 고후 9:12, 13).
- (3) 따라서 본질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각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하며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 (4)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 날에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으리라는 경고가 암시되어 있다(전 3:17; 뱀전 1:17).
- (5)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직고해야 할 때를 맞이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공로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그때에 과연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 받은 의무를 성실과 믿음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참조, 마 24:45-51).

6. **㉠** 바울은 6-10절에서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을 어디에 적용하고 있는가?

- ㉠** (1) 바울은 이 부분에서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을 실제적인 견지에서 금전의 사용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 (2) 그런데 어떤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물질적인 일에 관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Meyer).
- (3) 그러나 바울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근본적으로 금전에 관한 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4) 첫째로, 7-9절이 가르치는 자들에게 대접하라는 6절의 주제를 일반적인 견지에서 확대시키고 있긴 하지만 10절은 다시 그 주제로 되돌아간다. 즉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라는 10절 말씀은 분명 자선을 베푸는 일을 나타내는 완곡한 표현인 것이다.
- (5) 둘째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7절의 잠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즐겨 연보를 내도록 권면할 때 사용했던 귀절이다(고후 9:6). 이 사실은 여기서도 그가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연보임을 암시한다.
- (6) 끝으로, 우리는 당시 바울에게 있어서 연보는 갈라디아의 실정(實情)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빈민을 위한 모금이 그의 방침 가운데 하나였고 또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바 모금을 진행하라는 훈령(訓令)이 아직 그의 마음에 생생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2:10).
- (7)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은 물질적인 원조를 권장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7. **㉠**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가? (6절)

- ㉠** (1)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텐쿤티>는 후기 교회에서 잘 발달된 교리 문답 체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극히 초기에 있었던 유료(有料) 교사들을 가리킨다.
- (2) 이러한 사실은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물질적으로 대접하는 것이 마땅함을 보여 준다(참조, 딤후 5:17, 18; 딤후 2:4).
- (3) 바울은 여기서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전 9:13)라고 말하면서 교역자가 물질적인 대접을 받는 것은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되어진 일임을 밝히고 있다(민 18:8-24).
- (4) 또한 예수께서도 ‘일군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마 10:10).
- (5) 위에서 볼 때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은 합당한 일임을 알 수 있다. 가르치는 자를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배려하여 주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마땅히 취할 예의이기도 하다. 만일 교역자가 굶고 있는 것을 보고도 이를 방관한다면 그 교회는 병들

은 교회이다. 또한 사랑이 없는 교회는 믿음도 없는 교회이다(참조, 롬 16:2).

8. **㉠** '하나님은 만홀(慢忽)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이며 이 말씀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7, 8절)
- ㉠** (1)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로 번역된 헬라어 <우 뤼크테리제타이>는 '조롱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KJV, RSV, is not mocked).
- (2)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조롱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뜻이 된다.
- (3) 전지 전능(全知全能)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아시며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시 139:1-16; 겔 11:5; 요 21:17; 계 19:6).
- (4) 이러한 사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영향 아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얻게 되지만, 육적이고 향락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일순간의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그 생은 결국에 이르러 사망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롬 7:5).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롬 8:12, 13). 겉으로는 믿음을 고백하는 척하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을 속이려 하다가 스스로 속는 어리석은 자이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에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마 7:21-23).
9. **㉠** 선을 행하는 자가 받는 시험은 무엇인가? (9절)
- ㉠** (1) 선을 행함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는 실망하여 결국 포기하도록 만드는 낙심이다.
- (2) 성도는 이러한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계속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3)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헬, 카이로)가 이르면 신실하게 선행을 한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히 12:1-3; 약 1:12).
- (4)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피곤해 하며 크게 낙심하는 자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품삯이나 받아 먹고 말려는 자들이요, 성령의 증거가 그 마음속에 없는 자들이다(골 7:2; 요 10:12, 13).
10. **㉠** 성도들은 선행을 베풀 때 누구에게 먼저 베풀어야 하는가? (10절)
- ㉠** (1)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2) 그러나 순서를 생각한다면 바울은 '믿음의 가정들' 곧 성도들을 먼저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다.
- (3)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곤궁할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보다 같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교회를 위해 덕이 되기 때문이다(요 13:34, 35).
- (4) 이상과 같이 성도들은 가까이 있는 믿음의 형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상호간에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참조, 행 2:42-47; 히 6:10).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야 남도 도울 수 있다.
11. **㉠** 바울은 본서신을 어떻게 결말짓고 있는가? (11-18절)
- ㉠** (1) 11-18절을 본서신의 결론부에 해당된다.
- (2) 바울은 이 부분에서 다시 율법주의를 고집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각별히 경계할 것(12, 13절)과 아울러 기독교 신앙은 외면적이며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며 초자연적인 것이라는 기본 원리를 재진술한다(14-16절).
- (3) 그리고 복음을 위해 겪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 언급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축복함으로써(17, 18절) 본서신을 끝맺는다.

(4) 이러한 내용을 지닌 결론부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구원받는다든 본서신의 대주제(2:14)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날카롭게 상기시키고 있다.

12. ㉠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는 무슨 뜻인가? (11절)

㉠ (1) 본절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 (2) 우선 몇몇 종교 개혁자들(Luther, Calvin)은 본절이 ‘내가 얼마나 긴 편지를 썼는지 보라’는 뜻이라고 보고 있으나 이는 의심스럽다.
- (3) 오히려 이 귀절은 대다수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바울이 써 넣은 글자의 크기에 관한 언급임에 틀림없다.
- (4) 그렇다면 바울이 ‘큰 글자’로 이 부분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있다.

① 다이스만(Deissmann)은 ‘큰 글자’는 노동에 의해 손이 거칠어진 노동자의 투박한 필체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이는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 비록 바울이 전문적인 필사자가 아니므로 세련된 필체를 구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고후 11:6) 이 사실만으로 그가 큰 글자에 대해 강조한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② 바울이 현대 인쇄물에서 이탤릭체(italics)나 굵은 활자체를 사용하듯이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할 목적으로 글자를 일부러 크게 썼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는 본서신의 주요 논점을 되풀이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속에 심어 주려는 이 부분의 취지와 일맥 상통(一脈相通)하므로 타당성을 지닌다(참조, ㉠ 11).

③ 바울이 시력이 나쁘거나 눈에 질병이 있기 때문에 큰 글자로 썼다는 주장이 있다. 고후 12:7의 ‘육체에 가시’라는 말이라든가 본서신 4:15의 ‘눈’에 관한 언급 등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5) 어쨌든 바울은 이 부분에서 본서신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주요 논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직접 펜을 들었음에 틀림없다(참조, 고전 16:21; 골 4:18; 살후 3:17).

13. ㉠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12, 13절)

㉠ (1)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모양을 내다’로 번역된 헬라이어 <유프로소페사이>는 ‘인간적인 결치레만을 일삼는다’(공동 번역)는 뜻이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딤후 3:5)들 곧 외식 주의자들임을 나타낸다.

(2)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이다(5:2, 3). 이들이 할례를 주장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두려워하며, 그들과의 마찰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자기들의 명예를 보존하고 고난을 막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는 불신앙적인 것이다.

(3) 그들은 할례를 주장하나 율법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다만 다른 교인들로 하여금 할례받게 하여 그들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모으려는 자들이다(참조, 벧후 2:1, 2).

(4) 이상에서 볼 때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한 거짓 교사들(2:4)은 복음적인 신앙을 외면하고 세상과 타협하려는 자들임을 알 수 있다(딤후 1:6, 7). 성도들은 이러한 자들을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유 1:23).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며(참조, 마 24:5, 24), 속이고(고후 11:13), 종내는 진리에서 떠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딤후 6:3-5).

14. ㉠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바울 사도의 삶의 모습을 간략하게 설명하라(14절).

㉠ (1)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행 9:1-9) 이후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다(빌 3:4-10; 딤후 1:12-16).

(2) 즉 그는 인간의 어떤 공적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다는 복음의 진리만을 증거하는 삶으로 일관(一貫) 하였다(참조, 고전 2:2).

- (3)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은 세상을 ‘배설물’ (빌 3:8)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모습이다.
- (4)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진실한 성도에게 있어서는 제일의 영광이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참조, 고전 1:18; 엡 2:16). 만일 십자가 외에 세상의 다른 철학과 이념들을 앞세운다면 그는 진정한 성도가 아니다(참조, 골 2:8).

15. ㉠ ‘할레나 무할레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15절)

- ㉠ (1) 구원의 방법으로서 할레나 무할레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며(참조, 5:6; 고전 7:19), 다만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것으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요 3:3, 5).
- (2)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은 이 교파에 속하였느냐 혹은 저 교파에 속하였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오직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이 되었느냐에 달린 문제이다.
- (3) 교회에 등록하고 집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의 영을 그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야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이다(고전 2:14; 12:3).

16. ㉠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기원하는가?(16절)

- ㉠ (1)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 (2) 여기서 ‘규례’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논>은 ‘정경’(正經)을 뜻하는 말이지만, 본절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구원이 베풀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복음’을 가리킨다(참조, 15절).
- (3)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은 복음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진다的事实을 알 수 있다(참조, 골 1:20).
- (4)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행하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있다.
- (5) 이것은 복음을 믿는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참된 이스라엘 족속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 (6) 이와 같이 복음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되며,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입는 축복을 받게 된다(롬 15:33; 고후 13:11; 빌 4:6-9).

17. ㉠ 바울은 본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17절)

- ㉠ (1) 바울은 이 후로 어느 누구도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문제(참조, 3:1-5)를 가지고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 달라고 말하고 있다.
- (2) 이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이 그것에 관해 듣기를 원치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기꺼이 그것에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 (3) 또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본절을 말하지 않았다. 실상 그들은 바울과 관계 없이 계속하여 말쟁을 일으킬 것이었다(참조, 행 19:13-41; 28:17-30).
- (4) 오히려 바울은 율법주의적인 이단에 빠져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여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
- (5)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이 희생을 무릅쓰고 세운 교회가 율법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그릇된 가르침에 스스로 대적하고, 필요하다면 그 때문에 뒤따르는 박해도 견뎌 내면서 자신들의 뒤통에 해당하는 고난을 감당하기를 바라고 있다.

18. ㉠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은 무슨 뜻인가? (17절)

- ㉠ (1) '흔적'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티그마타>는 종이 주인에게 예속되었음을 입증해 주는 '낙인' (烙印)을 의미한다(공동 번역).
- (2) 그런데 여기서 '흔적'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입은 핍박과 고난의 흔적을 가리킨다.
- (3) 실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그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행 20:24) 온갖 박해와 고난을 겪으면서도 깨끗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참조, 행 13:50; 14:19; 18:17; 고후 6:4, 5; 11:23-27).
- (4) 이와 같이 철저히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바울 사도의 삶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것이다(마 10:38; 눅 9:23).

연구자료

중생(重生)의 의미. 우리는 예수와 니고데모 간의 대화를 잘 알고 있다(요3:1-15). 하나님 나라에 관한 니고데모의 질문을 받은 예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라는 질문에 대하여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고 대답하셨다. 이상과 같은 말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진 한데 그 거듭남이란 것이 인간 경험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과연 '거듭남'이란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바울은 본장에서 거듭남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새로운 창조'임을 시사하고 있다(15절). 즉 허물과 죄로 죽고(엡2:1, 5) 하나님의 영의 일에 대하여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고전2:14) 자신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던(딤후1:9)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엡4:24)이 곧 중생이다(regeneration). 세상에 갓 태어나는 아기가 자신의 출생과 관계하여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듯이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으며 다만 성령의 능력과 창조적인 활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딤후3:5).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거듭남을 가리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요1:13)이라고 정의하였던 것이다.